

#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 — 수신 교과서 『婦女鑑』의 인물 구성 연구

朴利鎭\*\*

- |                                      |                                              |
|--------------------------------------|----------------------------------------------|
| I. 머리말                               | IV. 대국의식의 변화와 근대 전환기적<br>양상: 활약 시기 편차에 따른 특징 |
| II. 『婦女鑑』 인물 구성이 갖는 특징적<br>요소: 연구방법  | V. 범주화되는 직분과 자아실현의 영역:<br>신분 및 사회적 지위로 본 특징  |
| III. 경계를 넘는 경험: 출신 국가 분포에<br>나타나는 특징 | VI. 맺음말                                      |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 여자 수신 교과서 『婦女鑑』에 등장한 인물 구성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주요 메신저로 등장하는 여성 124명의 출신 국가별 분포, 활약 시기의 편차, 그리고 신분 및 사회적 지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그 특징을 분석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총 12개국 12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婦女鑑』은 19세기 후반 일본의 근대 전환기적 양상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서양 국가의 다양한 편재나 낯선 지역명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인물의 경험이 결합하면서 국경, 인종, 민족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상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중국과 서양에 대한 대국의식의 변화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이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

서양 인물들과 오버랩하고 나아가 일본 여성과 서양 여성을 대등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또 여성들은 주로 남성의 계급, 출신에 의해 그 사회적 지위가 소개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직분을 딸, 아내, 어머니로 범주화하는 형태로 당시 아내라는 지위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남편을 보조하거나 남성의 자리(역할)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만의 능력으로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 여성상도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의 제시는 당시 기존과 다른 여성성을 재구성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도덕관의 재편과 확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내라는 직위의 재발견과 마찬가지로 자선이 문명화된 도덕률처럼 여겨지는데, 이상적인 여성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범주화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에 가까운 도전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은 그 당시까지 개념화되어 있지 않던 자립성을 새로운 여성성으로 포섭해 가는 것이기도 했다.

『婦女鑑』은 유교 사회의, 혹은 근대 전환기의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학습 과정에서 모범적 여성상을 모방(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모범적 행적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추체험하고 나아가 타자와의 공감 능력을 형성한다. 수신 교과서인 『婦女鑑』을 반복과 모방의 세계가 아니라 재배치와 재의미화와 같은 표상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이유이다.

주제어 : 부녀감, 이상적 여성상, 근대 전환기, 여성의 범주화, 도덕관의 재편, 모방과 동일시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교육을 내셔널리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정치, 민족 공동체의 합일을 목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조직화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는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교육이 국가가 선택한 이념과 규범, 그리고 문화 일반에 대하여 국민을 교화하고 통합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질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능은 문화혁명의 속성을 가진다고 한다. 또 하나는 중세 봉건 체제가 붕괴한 이후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사회체제가 아닌 변형적인 사회구성체가 등장하는데, 이때 교육이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의 결합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한 절대주의 교육체제(국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의 창출로 보기도 한다.<sup>1)</sup>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식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여러 교육 조치를 단행하였다. 폐번치현(1871년) 이후 근대식 학교 제도의 창설과 중앙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문부성 설치, 그리고 학사 장려에 대한 「被仰出書」(1872년)<sup>2)</sup>를 발표하여 서구형 근대식 학제를 반포하였다. 「피양출서」는 당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던 서구열강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화주의적인 문명개화론의 교육 정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 이후 학제 반포와 관련된 개화사상은 ‘지식, 예능만을 숭상’하고 ‘문명개화의 끝자락을 쫓아 품행을 파기하고 풍속을 해친다’며 배격되었다.<sup>3)</sup> 이를 계기로 군신부자의 대의를 중시하는 존왕주의적 유교 사상이 핵심이 된 德敎 사상이 등장한다. 이것이 황도주의적 관점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일본식 도덕론이 탄생하게 된다.

『婦女鑑』은 1884년, 당시 메이지 천황의 황후 쇼켄(昭憲, 1849~1914)이 명하여

1) 윤종혁,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교육근대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26(1), 1999, 4~5면; 安川壽之輔, 『日本近代教育の思想構造』, 新評論社, 1970.

2) 太政官布告第214号, “學事獎勵に關する被仰出書”(學制序文), 1872.8.3. 새롭게 서구식 근대 학제를 제정하는 취지를 담은 교육 조치의 서문으로 당시 일본 학교 교육의 기본 조직을 형성하였다. 계몽주의 교육사상가 福澤諭吉의 초기 저작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中内敏夫, 『近代日本教育思想史』, 國土社, 1973, 123~125면.

3) 石田雄, 『近代日本政治構造の研究』, 未來社, 1971, 26~27면.

宮内省에서 출간된 수신 교과서로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가 전반적인 편찬을 맡았다. 니시무라는 1873년 창설된 일본의 계몽학술단체로 유명한 메이로쿠샤(明六社)<sup>4)</sup>의 결성에도 참여한 교육사상으로 문부성 편집국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교과서와 사전 편찬에 관여하였다. 특히 수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교화 단체인 東京修身學社(현재 日本弘道會)를 창설한 그는 『小学修身訓』(1880년, 文部省) 및 『日本道德論』(1887년, 西村金治)을 집필하여 ‘도덕 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닦기도 하였다. 儒學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양학(蘭學, 英學)에도 밝았던 그는 당시 유교와 양학의 장점을 융합하여 일본의 ‘국민도덕’ 확립과 보급에 노력하였다. 황도주의적 유교주의를 국가주의와 융합시킨 일본 도덕론은 그의 교육사상의 핵심으로도 지적된다.<sup>5)</sup> 이러한 출간 배경 때문인지 『婦女鑑』에 관한 선행연구는 열전형식을 띤 예화의 교훈, 즉 덕목에 중점을 둔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18~19세기 유교교육과의 관계와 현모양처의 일본식 발견으로서의 ‘양처현모’론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그중 교과서로서의 『婦女鑑』 연구의 경향을 보면, 메이지기 궁내성 출간 교과서라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출간 배경을 부각시켜 황실과 도덕교육의 관계를 환기하는 연구와<sup>6)</sup> 19세기 말 20세기 초(1895~1912년) 고등여학교 국어 교과서 출전으로 『婦女鑑』을 많이 채용했음을 지적하는 정도가 대표적이다.<sup>7)</sup> 이외 니시무라 시게키가 여성 교육자라는 점에서 그의 교육사상과 관련한 지적이나 그의 유교주의 사상의 반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8)</sup> 반면 다른 수신 교과서와 비교할 때 서양의

4) 1873년에 창설된 메이로쿠샤는 유교적 사유 양식의 전환과 과학적, 실증적 방법론과 문명개화를 창도하기 위해 프랑스의 몽테뉴(Montesquieu), 기조(Guizot), 영국의 벤담(J. Bantham),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스펜서(Spencer) 등의 계몽사상을 도입·수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창립 당시 정회원들이 대부분 도쿠가와 막부시대의 서양문화를 연구하는 외교기관이었던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의 교수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漢學의 소양을 토대로 경험주의·합리주의 정신에 입각한 蘭學 등 서양 학문에 접근한 ‘일본의 백과전서파’라고 할 수 있다. 宮川透, 『近代日本思想の構造』, 東京大學出版會, 1986, 445면.

5) 色川大吉, 「天皇制イデオロギーと民衆意識」, 『歴史學研究』 341, 青木書店, 1967, 4~12면.

6) 海後宗臣編, 『日本教科書体系 近代編』, 講談社, 1962.

7) 浮田真弓, 「明治後期高等女学校の国語教材に関する一考察」, 『桜花学園大学研究紀要』, 2001.

8) 真辺美佐, 「華族女学校校長としての西村茂樹—その学校改革女子教育論をめぐって—」, 『弘道』 116, 日本弘道會, 2008.; 片山清一, 『近代日本の女子教育』, 建帛社, 1984. 『婦女鑑』이 ‘국수주의 유교주의적’이라는 관점의 연구는 『婦女鑑』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박이진·박시연, 「여

예화가 많다는 점에 착목하여 유교적인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sup>9)</sup> 이는 니시무라가 서양학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서양의 교양 섭취에 노력한 것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sup>10)</sup>

나아가 서양서 번역이나 수신서를 편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가 사회적으로 당시 화족제도개혁(宮中改革)이 추진되었을 때 이 교과서를 준비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사실이다.<sup>11)</sup> 17~19세기 중반(江戸期)부터 계승되던 열전형식 수신교과서에 나타난 덕목 중심의 유교주의와 19세기 후반(明治期) 발현되는 양치현모 사상의 과도기적 모습을 『婦女鑑』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자선·애국과 같은 덕목을 사회, 국가에 관한 덕목으로 분류하여 이 두 덕목이 강조되고 있는 『婦女鑑』을 기존 가족도덕, 개인도덕 중심의 수신 교과서와의 차이로 지적하기도 한다.<sup>12)</sup> 이렇듯 교과서로서의 『婦女鑑』에 대한 접근은 덕목 교육이 갖는 이데올로기성, 즉 『婦女鑑』에 실린 덕목이 유교주의와 근대주의(양치현모 사상)의 발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치중해 있다.<sup>13)</sup>

수신 교과서는 당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체임과 더불어 학습자에게는 학습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한다. 이로 인해 수신, 도덕교육에서 인물(모델) 학습이 중요해진다.<sup>14)</sup> 학습자가 그 인물을 모방하고 동일시하며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사고하게 되는 것으로, 수신교과서를 배우는 학습자의 측면 역시 교과서 편자(제작자)의 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婦女鑑』에 등장한

---

자 수신 교과서 『婦女鑑』의 텍스트성-일본 근대 전환기 여성 표상의 다양성, 『史叢』 105, 고려대역사연구소, 2022, 193~228면).

- 9) 유교적 색채가 없어졌다는 지적으로, 에치코 준코는 이러한 연구가 『婦女鑑』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婦女鑑』 서문’에 실린 해제만을 보고 언급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越後純子, 『近代教育と『婦女鑑』の研究』, 吉川弘文館, 2016, 12~19면.
- 10) 海原徹, 『西村茂樹の女子教育論』, 『社会福祉評論』 33·34, 大阪女子大学社会福祉学科, 1968.
- 11) 越後純子, 『近代教育と『婦女鑑』の研究』, 吉川弘文館, 2016, 203~242면.
- 12) 越後純子, 『近代教育と『婦女鑑』の研究』, 吉川弘文館, 2016, 176~202면.
- 13) 『婦女鑑』이 일본에서 간행된 기존 열전형식의 수신 교과서와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상기한 박이진·박시연의 논문 참조.
- 14) 노명완·정혜승·윤준채,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윤옥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인물 분석」, 『초등교육연구』 34(3), 2021, 2면.

인물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120개의 예화로 구성된 『婦女鑑』에는 124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그러나 선행된 연구를 보면 영국 여성 그레이스 달링(額黎咀林, Grace Horsley Darling)이라는 여성을 소재로 다룬 교과서나 서적을 추적해 예화 출전과 삽화를 검토하면서 『婦女鑑』을 언급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sup>15)</sup>

그 외 『婦女鑑』 인물에 주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전환기적 일본의 모습과 이에 따른 이상적 여성상의 변화를 지적한 연구가 있다.<sup>16)</sup> 이 연구 역시 덕목 중심으로 예화를 구분하고 있지만, 지역을 일본, 중국, 서양으로 나누고 또 일본의 경우 등장인물의 활동 시기를 언급해 놓은 것으로는 유일하다. 그러나 중국, 서양에 관한 분석이 없고 일본의 경우도 시기적으로 에도시대 인물에 편중해 있다. 지역에 관한 분석도 다양하다는 지적 정도이다.

수신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등장인물이다. 물론 등장인물과 관련된 덕목이 그 매개가 되어 유형화(영웅화)되기도 한다. 일본 19세기 말, 20세기 초(明治~大正期) 발행된 수신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을 분석한 연구를 참고해 보면, 충효와 애국 같은 덕목을 고수한 인물을 영웅화하여 당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婦女鑑』이 발행된 때를 다루고 있지만 국정 수신 교과서가 분석 대상으로 『婦女鑑』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 240여 명의 등장인물 중 주요 인물 28명을 임의로 선별하고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제외한 24명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여성이 5명 등장하는데, 자선을 베풀어 영웅화된 유형으로 1명(鈴木宇右衛門의 처와 딸)이 『婦女鑑』의 인물과 겹친다. 그러나 『婦女鑑』은 기존 수신 교과서와 다르게 덕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한 인물이 하나의 덕목에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종류의 덕목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sup>18)</sup> 이는 『婦女鑑』의 편성이 기존 수신 교과서 체계와 다른 다면적인 해석 영역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婦女鑑』이 갖는 ‘텍스트성’을

15) 尾崎るみ, 「『婦女鑑』の「額黎咀林」をめぐる一明治の少女向け読み物の軌跡(八)」, 『論叢児童文化』 48, くさむら社, 2012.

16) 菅野則子, 「望まれる女性像-『幼學綱要』・『婦女鑑』を中心に」, 『帝京史学』 26, 2011, 141~169면.

17) 김순전·박선희, 「일본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기의 ‘修身’ 교과서 연구-‘修身’ 교과서에 나타난 ‘영웅의 유형」, 『일어일문학』 2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4, 113~132면.

18) 菅野則子, 「望まれる女性像-『幼學綱要』・『婦女鑑』を中心に」, 『帝京史学』 26, 2011, 141~169면.

시사한다.<sup>19)</sup> 학습자(독자) 입장에서 독자론을 비롯해 실제 등장인물에 대한 전기(filmography) 비평과 같은 메타비평의 지평을 통해 19세기 후반 일본의 전환기적 모습을 재현과 재편 사이의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화에 따라 삽입된 50개의 삽화(시각 자료)도 재현을 넘어 표상 체계로서 『婦女鑑』을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19세기 후반 당시 일본에서 여성 인물에 관한 교육 모델로 『婦女鑑』에 서양 여성을 대거 등장시킨 점은 주목을 요한다. 120개의 예화에 124명이 등장하는 『婦女鑑』의 여성들은 일본인 34명, 중국인 33명, 서양인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婦女鑑』 출간 이전의 여자 수신서류는 주로 일본과 중국 여성을 다룬 것이 많다. 『婦女鑑』처럼 일본, 중국, 서양의 예시를 담고 있는 것은 『女子修身訓』으로 총 47개 예화 중 서양편이 7개에 불과하다. 서양 여성이 ‘이례적’으로 일본, 중국 여성과 비슷한 비율로 등장한 것은 『婦女鑑』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 편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니시무라가 서양학자라는 이유로 서양의 교양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지적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학습자(독자)가 이전의 女訓書を 통해 학습할 수 있던 세계와는 상당히 다른 세계관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婦女鑑』은 선행된 연구의 지적처럼 유교 사회의, 혹은 근대 전환기의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학습 과정에서 모범적 여성상을 모방(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내훈을 집필한 소혜왕후가 열녀전의 인물을 인용해 창출해 놓은 ‘젠더 정치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여성들이 ‘주나라 왕실, 춘추전국 등 열녀전 서사의 시공간의 배경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범적 행적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추체험하고 나아가 타자와의 공감 능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sup>20)</sup> 유교적 젠더 규범에 복종하는 측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는

19) 보다 자세하게는 박이진·박시연, 「여자 수신 교과서 『婦女鑑』의 텍스트성-일본 근대 전환기 여성 표상의 다양성」, 『史叢』 105, 고려대역사연구소, 2022, 193~228면, 참고.

20) 나아가 여성들도 역사를 구성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속에서 자기와의 조응을 실현, 즉 자기 존중, 자기실현의 인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김세서리아, 「『내훈』의 『열녀전』 인물 인용을 통해 본 소혜왕후의 젠더정치성」, 『시대와 철학』 32(1), 2021, 37~67면.

‘특이성 개발’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이 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당시 수신 교과서인 『婦女鑑』을 반복과 모방의 세계가 아니라 재배치와 재의미화와 같은 표상 체계 속에서 파악할 때 특히 서양 여성의 등장이 주는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婦女鑑』 편찬 이전의 여자교육용 수신서는 중국 모델 중심이었다. 이는 근대화 이전 일본의 대국외식(중국 vs 일본)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婦女鑑』에 서양이 추가됨으로써 양자구도의 문명관이 재편된다(서양 vs 일본, 중국). 이는 지리관념의 재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럽의 생소한 지명과 함께 등장하는 서양 여성의 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서구의 역사, 기후, 시스템(문화)과 같은 부수적 정보를 통해 예화의 공간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지명보다는 인물이 살던 시기(한나라, 초나라, 제나라 등)가 예화의 공간적 배경을 대변한다.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과 같은 지리적 공간 개념의 확대를 다룬 예화도 서양 여성이 중심으로, 예를 들어 독일 여성 베티 암보스(권1 「百底安波」, Bety Ambos)는 억울한 누명을 쓴 친오빠를 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영국 여성 제인 프랭클린(권6 「佛蘭格林의夫人」, Jane Franklin)은 탐험을 떠난 후 행방불명된 남편의 흔적을 쫓아 북극 빙해까지 이동한다.

또 인물 분석은 『婦女鑑』이 여학생 교육에 사용된 특징의 수신 교과서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즉 『婦女鑑』이 구화주의나 일본의 근대화, 혹은 천황 중심의 충군애국 정신 고취라는 당시 교육 목표와 부합된 교과서에 해당한다고 보면 여학생을 특정해 교육한다는 점에서 『婦女鑑』은 당시 일본 여성의 ‘국민 만들기’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청렴·검소, 언변, 성실, 정직, 간병·간호, 문명·교화’를 담당하는 인물의 예화를 ‘잡덕’이라는 카테고리 분류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 덕목 구성의 틀(효행, 우애, 부덕, 근검, 자선, 모도, 충성, 애국, 식견, 재학, 처변)에서 벗어난 인물을 통해 도덕(윤리)관을 확장(재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婦女鑑』의 인물들은 타고난 기질로서의 ‘선함’을 갖춘 인물로 많이 묘사된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미인이었고, 또 남자 못지않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과 인내와 강직함을 갖고 있었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자질은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남편을 보조하며 나아가 군주까지 교화할 수 있는 여성의 조건이기도 하다. 즉 ‘여성성’이 당시 새롭게 재편되는 과도기적 특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과거 수신서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효성과 지조가 깊었음을 전제로

묘사되던 것과는 비교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婦女鑑』의 수신 교육서로서의 의미를 덕목 중심이 아닌 인물 편성에 주안을 두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婦女鑑』 인물 구성이 갖는 특징적 요소: 연구방법

교과서가 한 국가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한 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婦女鑑』은 인물 인용을 중심으로 한 수신 교과서이기 때문에 인용된 인물의 정보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사고하게 된다. 그만큼 『婦女鑑』에 등장하는 인물, 그중에서도 주제를 전달하는 메신저(매개자)를 어떠한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할지 분석의 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婦女鑑』은 1887년(明治20)에 간행될 때까지 4종류의 編纂稿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처음 華族女學校의 하사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이후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일반에게 판매된 『婦女鑑』은 1887년에 宮内省御藏版 1쇄판(출판사 吉川半七) 이후 1926년(大正15)에 7쇄판(출판사 郁文舎)이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26년에 간행된 판본을 분석했다.<sup>22)</sup>

그리고 수신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여러 성향, 곧 출신 지역, 활동 시대, 직업 및 신분 등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sup>23)</sup>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물 분석의 요소를 본고에서는 크게 인물의 출신 국가, 활약 시기, 신분 및 소개 방식으로 설정해 보았다.

21) 『婦女鑑原稿』, 『婦女鑑西洋篇草稿』, 『婦女鑑草稿』, 『婦女鑑校正刷』가 그것으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越後純子, 앞의 책, 89~103면.

22) 1887년에 간행된 1쇄판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권4의 3번째 예화 제목이 ‘湯淺元禎 / 妻’로 되어 있는데 목차나 1쇄판에서는 본문과 목차 모두 ‘湯淺元禎 / 母’로 표기되어 있다. 妻는 母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23) 구니이 유타카,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상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2(4), 2012, 55면.

## 〈표 1〉 『婦女鑑』 인물 구성이 갖는 특징적 요소

(권호의 연번은 필자가 임의로 표기. 예화 제목과 활약 시기에서 필자의 보완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에는 ‘\*’ 표기)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1  | 권1-01 | 衣縫金繼女                    | 日     | 承和8 *841년                  | 9   | 미혼, 교량건설,<br>표창 | 딸,<br>“재봉사 가나쓰구의 딸”                  | 女子立志篇 |
| 2  | 권1-02 | 福依壳                      | 日     | 仁寿3 *853년                  | 9   | 농민, 표창          | 본명,<br>“사치요리메는”                      | 姫鑑    |
| 3  | 권1-03 | 孝女密茲                     | 日     | 아키국 *7세기 지역명               | 7   | 농민              | 본명, 별칭<br>“효녀 미시”                    | 野史    |
| 4  | 권1-04 | 齊太倉女<br>*淳于緹縈            | 中     | 한나라 효문제<br>*漢文帝13, BC167   | BC2 | 태창령의 딸          | 딸, 본명,<br>“제나라 태창의 딸 제양”             | 劉向列女伝 |
| 5  | 권1-05 | 珠崖二義<br>*初               | 中     | 주에 *漢武帝,<br>BC112-BC44 지역명 | BC1 | 수령의 딸           | 별칭, 지역, 본명,<br>“주애라는 곳의 여성 초”        | 劉向列女伝 |
| 6  | 권1-06 | 路易斯女                     | 西-프랑스 |                            |     | 관현을 잘 다룸        | 본명,<br>“루이즈는”                        | 勸懲雜話  |
| 7  | 권1-07 | 新約克の孝女                   | 西-미국  | 1783년 겨울                   | 18  | 가난한 서민,<br>품팔이  | 별칭, 지역,<br>“뉴욕의 효녀”                  | 西洋列女伝 |
| 8  | 권1-08 | 哈德遜河の孝女                  | 西-미국  | 1852년                      | 19  | 가난한 여성          | 별칭, 지역,<br>“허드슨강 효녀”                 | 修身教訓  |
| 9  | 권1-09 | 富女<br>*富                 | 日     | 嘉永期 *1848년                 | 19  | 종이 장사 보조        | 본명, 딸,<br>“토미는 종이장수<br>아무개의 딸”       |       |
| 10 | 권1-10 | 黒連窩加<br>*Helen<br>Walker | 西-영국  | 1791년 묘비<br>*1710~1791년간   | 18  | 미천한 신분          | 본명, 딸,<br>“헬렌 워커는 아이온<br>그레이의 장녀이다.” | 西洋列女伝 |
| 11 | 권1-11 | 百底安波<br>*Bety<br>Ambos   | 西-독일  | 1833년 전후                   | 19  | 부유한 상인의<br>장녀   | 본명, 딸,<br>“베티 암보스는 술집<br>장녀이다.”      | 西洋列女伝 |
| 12 | 권1-12 | 毛利勝永妻                    | 日     | 慶長期 *1600년                 | 17  | 무사의 아내          | 아내,<br>“모리 가쓰가나 아내”                  | 夜鶴集   |
| 13 | 권1-13 | 三宅重固妻田<br>代氏<br>*田代清     | 日     | 미야케 쇼사이<br>*1662~1741년간    | 17  | 학자의 아내,<br>품팔이  | 아내, 성씨,<br>“미야케 쇼사이의 아내<br>다시로 씨”    | 畸人伝   |
| 14 | 권1-14 | 瀧長愷妻<br>*竹               | 日     | 다키카구다이<br>*1709~1773년간     | 18  | 학자의 아내          | 아내,<br>“다키카구다이 아내”                   | 女子立志篇 |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15 | 권1-15 | 黒柳孝女<br>*放光院                   | 日                | 마쓰다이라<br>사다야키라<br>*1700~1747년간                             | 18           | 무사의 아내                   | 본명, 별칭,<br>“구로야나기 효녀“                | 野史                |
| 16 | 권1-16 | 美濃部伊織妻<br>*美濃部るん               | 日                | 文化6, 10월, 71세<br>*1809년경                                   | 18           | 몰락한 무사의<br>아내, 시종        | 아내,<br>“미노베 이오리 아내“                  | 一話一言              |
| 17 | 권1-17 | 稻生回軒妻波留<br>*稻生春子               | 日                | 元禄8 77세<br>*1619~1695년간                                    | 17           | 태정관 서기의 딸,<br>의사의 아내     | 본명, 딸, 아내,<br>“하루코는 ~딸, ~아내이다“       | 野史                |
| 18 | 권1-18 | 農夫忠五郎妻                         | 日                | 데와국 *8세기초<br>지역명                                           | 8?           | 부농의 아내                   | 아내,<br>“농부 추고로의 아내“                  | 夜鶴集               |
| 19 | 권1-19 | 綾部道以妻志知<br>*志知子                | 日                | 正徳원년 가을 63세<br>*1711년경                                     | 18           | 유학자의 아내                  | 본명, 딸, 아내,<br>“시치코는~딸, ~아내“          | 野史                |
| 20 | 권1-20 | 佐瑛女<br>*佐瑛                     | 日                | 히타치국 *7세기경<br>지역명                                          | 7?           | 농부                       | 본명, 아내, “사요는 농부<br>이헤이타의 아내이다.”      | 野史                |
| 21 | 권2-01 | 蔡人妻                            | 中                | 채나라<br>*BC11~BC447                                         | BC11<br>~BC5 | 재가 권유 거절,<br>시 창작        | 아내,<br>“채나라 아무개의 아내“                 | 劉向列女伝             |
| 22 | 권2-02 | 陳堂前                            | 中                | 乾道9 문려를 세워줌<br>*1173년경                                     | 12           | 자선가, 표창                  | 딸, “진당전은 왕 씨의<br>딸이다.”               | 新統列女伝             |
| 23 | 권2-03 | 王受命妻<br>*楊氏                    | 中                | 명나라<br>*1368~1662년간                                        | 14-17        | 품팔이                      | 아내, 성씨,<br>“왕수명의 아내 양 씨“             | 閨媛典鈔録             |
| 24 | 권2-04 | 波立的那の妻蔡達<br>*Thesta            | 西-이탈리아           | 시라쿠사 왕<br>디오니시오스 *BC4                                      | BC4          | 왕의 누이                    | 본명, 아내, 누이,<br>“제스터는~아내~누이이다.”       | 西洋列女伝             |
| 25 | 권2-05 | 百斯加並冠那地難<br>多の夫人微多利            | 西-이탈리아           | 1490~1547년                                                 | 16           | 귀족(후작)의<br>아내            | 본명, 딸, 아내,<br>“빅토리아는~딸, 아내이다.”       | 西洋列女伝             |
| 26 | 권2-06 | 安弗拉斯曼<br>*Anne Flaxman         | 西-영국             | 1760~1820년                                                 | 19           | 예술가(조각가)<br>남편 보좌        | 본명, 아내, “안<br>플렉스맨은~아내이다.”           | Woman's<br>Record |
| 27 | 권2-07 | 馬屈利多<br>*Marguerite            | 西-프랑스            |                                                            |              | 채석장 인부와<br>부부 언약         | 본명, 아내,<br>“마르제리타는~아내이다.”            | 修身鑑<br>추정         |
| 28 | 권2-08 | 亜耳巴地侯<br>の夫人                   | 西-오스트리아<br>헝가리제국 | 1776년경 슬로베니아<br>기행 중의 기담                                   | 18           | 광산 노역, 후에<br>직위(후작)를 되찾음 | 아내,<br>“알버트 후작의 부인“                  | 西洋列女伝             |
| 29 | 권2-09 | 脱勒辺夫人<br>*Dolley<br>Payne      | 西-미국             | 1809년 제임스 매디슨<br>대통령 당선, 1849년<br>돌리 페인 사망<br>*1768~1849년간 | 19           | 영부인                      | 본명, 아내,<br>“돌리페인은 제임스<br>매디슨의 아내이다.” | Woman's<br>Record |
| 30 | 권2-10 | 任善德弗の妻<br>*Erdmuth<br>Dorothea | 西-독일             | 친첸도르프<br>*1700~1756년간                                      | 18           | 백작의 아내,<br>종교가 남편<br>보좌  | 아내,<br>“친첸도르프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31 | 권2-11 | 呼倍爾<br>*Marie-Aimée<br>Lullin   | 西-스위스 | 후벨 *1751~1822년간                        | 18  | 박물학자 남편<br>보좌           | 아내,<br>“후벨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32 | 권2-11 | 拔克蘭<br>*Mary<br>Buckland        | 西-영국  | 버클랜드<br>*1797~1857년간                   | 19  | 지질학자 남편<br>보좌           | 아내,<br>“버클랜드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33 | 권2-11 | 哈米爾敦의妻<br>*Janet<br>Hamilton    | 西-영국  | 해밀튼 56세 때<br>*1844년 전후                 | 19  | 철학자 남편<br>보좌            | 아내,<br>“해밀튼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34 | 권2-12 | 奈蒲爾                             | 西-독일  |                                        |     | 저술가 남편<br>보좌            | 아내,<br>“나이블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35 | 권2-12 | 彌爾<br>*Harriet<br>Taylor Mill   | 西-영국  | 밀 *1807~1858년간                         | 19  | 철학자 남편<br>보좌, 저술가       | 아내,<br>“밀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36 | 권2-12 | 發拉第의妻<br>*Sarah<br>Faraday 추정   | 西-영국  | 파라디<br>*1800~1879년간                    | 19  | 남편을 보듬                  | 아내,<br>“파라디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37 | 권2-13 | 鐘尾ふで女<br>姉妹<br>*鐘尾ふで            | 日     | 빈고국 *7세기 후반<br>지역명                     | 7?  | 농민, 품팔이                 | 딸, 본명,<br>“가네오의 장녀 후데,<br>동생 도메”     | 女子立志篇 |
| 38 | 권2-14 | 二村清助妻衛女<br>*衛                   | 日     | 히다국 *8세기 초<br>지역명                      | 8?  | 농민,<br>가업(양조장)<br>이름    | 본명, 아내,<br>“에이온나는 후타무라<br>세이스케의 아내로” | 女子立志篇 |
| 39 | 권3-01 | 鈴木宇右衛門妻                         | 日     | 天明8 홍작 *1788년경                         | 18  | 농민의 아내,<br>구술가 남편<br>보좌 | 아내,<br>“스즈키 우에몽의 아내”                 | 小学読本  |
| 40 | 권3-02 | 雋不疑母                            | 中     | 준불의 *전한(중기)관료,<br>武帝-昭帝,<br>BC156-BC74 | BC1 | 관리(경조윤)의<br>어머니         | 어머니,<br>“준불의 어머니”                    | 劉向列女伝 |
| 41 | 권3-03 | 厚瓦徳の妻<br>*Henrietta<br>Leeds 추정 | 西-영국  | 하워드 부인 *헨리에타<br>하워드,<br>1689~1767년간 추정 | 18  | 자선가 남편<br>보좌            | 아내,<br>“하워드의 아내”                     | 修身鑑   |
| 42 | 권3-04 | 拔妻<br>*Caroline de<br>Barrau 추정 | 西-프랑스 | 바라우<br>*1828~1888년간                    | 19  | 법관의 딸,<br>교육자, 자선가      | 성씨, 딸<br>“바라우의 딸은”                   | 修身鑑   |
| 43 | 권3-05 | 貧老嫗<br>*受惠簿                     | 西-프랑스 |                                        |     | 품팔이(방직)                 | 별칭, “프랑스의 한<br>빈곤한 노파”               | 修身鑑   |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44 | 권3-06 | 担水夫克面の妻<br>*佛郎素                     | 西-프랑스 |                                |    | 물장수 남편의 아내                                     | 아내,<br>“물장수 자크멘의 아내”                           | 修身鑑            |
| 45 | 권3-07 | 利禰<br>*Linet                        | 西-프랑스 |                                |    | 품팔이                                            | 본명,<br>“리넷은”                                   | 修身鑑 추정         |
| 46 | 권3-08 | 維匡<br>*Vignon                       | 西-프랑스 | 비그농 *1822년경                    | 19 | 품팔이                                            | 본명,<br>“비그농은”                                  | 修身鑑            |
| 47 | 권3-09 | 馬理夫人<br>*Lady Mary Wortley Montagu  | 西-영국  | 1716년 남편 터키 부임<br>*1689~1762년간 | 18 | 귀족의 딸,<br>저널리스트,<br>두창예방법 보급                   | 본명, 딸, 아내,<br>“메리는 킹스톤공<br>에블린의 장녀로<br>~아내이다.” | Woman's Record |
| 48 | 권3-10 | 以撒伯拉額罕<br>*Isabella Marshall Graham | 西-영국  | 1742~1814년                     | 18 | 의사의 아내,<br>교육자, 자선가                            | 본명,<br>“이사벨라 그레이엄은”                            | Woman's Record |
| 49 | 권3-11 | 安那<br>*Anne-Françoise de Fougeret   | 西-프랑스 | 1745~1813년                     | 18 | 변호사의 딸,<br>세무장의 아내,<br>부친의 고이원 일<br>도움, 자선단체설립 | 본명, 딸,<br>“안은-팔로”                              | Woman's Record |
| 50 | 권3-12 | 少女馬利<br>*Marie                      | 西-프랑스 |                                |    | 정원사의 딸                                         | 본명, 딸,<br>“마리라는 소녀는<br>정원사의 딸이다.”              | 修身鑑            |
| 51 | 권3-13 | 撒拉馬丁<br>*Sarah Martin               | 西-영국  | 1819년 사건<br>*1791~1843년간       | 19 | 직공, 표창                                         | 본명, 딸,<br>“사라 마틴은 가난한<br>사람의 딸로”               | 西洋品行論          |
| 52 | 권3-14 | 維爾絲夫人<br>*Mary Ann Cooke            | 西-영국  | 1821년경 인도<br>*1784~1868년간      | 19 | 교육자                                            | 아내,<br>“윌슨 부인은”                                | Woman's Record |
| 53 | 권3-15 | 特多里蒙<br>*Célestine Détrimont        | 西-프랑스 | 1825년 악질 만연 당시                 | 19 | 부인, 자선가                                        | 본명,<br>“데트리몽은”                                 | 修身鑑            |
| 54 | 권3-16 | 瑣妮<br>*Madeleine Saunier            | 西-프랑스 | 1835년 겨울 혹한                    | 19 | 부인, 자선가                                        | 본명,<br>“소냐는”                                   | 修身鑑            |
| 55 | 권3-17 | 聚侃<br>*Jeanne Jugan                 | 西-프랑스 | 주강 *1792~1879년간                | 19 | 하녀,<br>구휼원설립                                   | 본명, 딸,<br>“잔 주강은 비천한<br>사람의 딸”                 | 修身鑑            |
| 56 | 권3-18 | 以利沙伯弗来<br>*Elizabeth Fry            | 西-영국  | 플라이<br>*1780~1845년간            | 19 | 범죄자 교화                                         | 본명, 딸,<br>“엘리자베스 플라이는<br>존의 딸이다.”              | 修身教訓           |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57 | 권3-19 | 額黎姐林<br>*Grace Horsley<br>Darling | 西-영국  | 1838년 9월 태풍,<br>증기선 난파<br>*1815~1842년간 | 19           | 등대지기<br>아버지를 도움        | 본명, 딸,<br>“그레이트는 등대지기<br>달링의 딸이다.”          | 童蒙教草          |
| 58 | 권4-01 | 楠正行母<br>*楠木久子                     | 日     | 延元원년 5월<br>*1336년경                     | 14           | 무사의 아내                 | 어머니,<br>“구스노키 마사쓰라의<br>어머니는”                | 姫鑑<br>(参考太平記) |
| 59 | 권4-02 | 清水太郎左<br>衛門母                      | 日     | 호조 우지마사<br>*1559~1590년간                | 16           | 무사의 아내                 | 아내, 어머니, “시미즈<br>우즈케노스케의 아내,<br>다로자에몬의 어머니” | 姫鑑            |
| 60 | 권4-03 | 湯浅元禎母<br>*湯浅瑠璃                    | 日     | 寛保원년 72세<br>*1670~1741년간               | 18           | 학자의 아내                 | 어머니, 본명,<br>“유아사 조잔의 어머니<br>루리코”            | 野史            |
| 61 | 권4-04 | 成田喜起母福島氏<br>*福島氏                  | 日     | 天明丙午 69세<br>*1786년경                    | 18           | 무사의 아내                 | 아내, 성씨,<br>“나리타 요시카즈의<br>아내 후쿠시마 씨~”        | 女子立志篇         |
| 62 | 권4-05 | 小出大助妻惠知子<br>*小出惠知                 | 日     | 에치코<br>*1749~1821년간                    | 18           | 무사의 아내                 | 본명, 딸, 아내,<br>“에치코는~딸~아내로”                  |               |
| 63 | 권4-06 | 魯季敬姜<br>*季敬姜                      | 中     | 노나라<br>*BC1046~BC256                   | BC11~<br>BC3 | 관리(대부)의 아내,<br>품팔이(방직) | 본명, 아내, 어머니, “노나라<br>계경장은~아내~어머니로”          | 劉向列女伝         |
| 64 | 권4-07 | 鄒孟軻母<br>*仇氏                       | 中     | 맹자 *BC372~BC289                        | BC4          | 품팔이(방직)                | 어머니, “추나라 맹자의<br>어머니는”                      | 劉向列女伝         |
| 65 | 권4-08 | 楚子癸母                              | 中     | 초나라 장수 자발<br>*초나라 선왕기,<br>BC369~BC340  | BC4          | 장군의 어머니                | 어머니, “초나라 자발의<br>어머니는”                      | 劉向列女伝         |
| 66 | 권4-09 | 魏芒慈母                              | 中     | 위나라 장수 망묘<br>*220~265년                 | 3            | 계모, 표창                 | 어머니, 딸, 아내,<br>“위나라 망의<br>자모는~딸~아내로”        | 劉向列女伝         |
| 67 | 권4-10 | 齊田稷母                              | 中     | 제나라 재상 전직자<br>*제나라 선왕기,<br>BC319~BC301 | BC4          | 관리(재상)의<br>어머니         | 어머니,<br>“제나라 전직의 어머니”                       | 劉向列女伝         |
| 68 | 권4-11 | 齊義繼母                              | 中     | *제나라,<br>BC1046~BC221                  | BC11<br>~BC3 | 계모                     | 어머니,<br>“제나라 의로운 계모”                        | 劉向列女伝         |
| 69 | 권4-12 | 王孫氏母                              | 中     | 제나라, 민왕공격 당함<br>*BC284년경               | BC3          | 관리(대부)의<br>아내          | 어머니,<br>“왕손의 어머니”                           | 劉向列女伝         |
| 70 | 권4-13 | 程文矩妻<br>*李穆姜                      | 中     | 한나라 정문구 *후한,<br>25~220년간               | 1~2          | 계모                     | 아내, 누이, “정문구의<br>아내는 이법의 누이”                | 劉向列女伝 (続)     |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71 | 권4-14 | 陶侃母<br>*湛氏                                  | 中      | 도간 *동진,<br>259~334년간         | 3     | 품팔이(방적),<br>관리의 어머니          | 어머니, 성씨,<br>“도간의 어머니 담 씨”             | 劉向列女伝<br>(続上)     |
| 72 | 권4-15 | 二程母<br>*侯氏                                  | 中      | 송나라 정이, 정호<br>*1033~1107년간   | 11    | 관리의 아내,<br>유학자의<br>어머니       | 어머니, 성씨, 아내,<br>“이정의 어머니 후<br>씨는~아내로” | 新統列女伝             |
| 73 | 권4-16 | 舌弗爾之母<br>*Cornelia<br>Scheffer              | 西-네덜란드 | 쉐퍼 *1769~1839년간              | 18~19 | 화가의 아내                       | 어머니,<br>“쉐퍼의 어머니”                     | 西洋品行論             |
| 74 | 권4-17 | 華聖頓之母<br>*Mary Ball<br>Washington           | 西-미국   | 워싱턴 *1707?<br>1709?~1789년간   | 18    | 과부가 된 이후<br>산업 관리            | 어머니,<br>“워싱턴의 어머니”                    | 西洋品行論             |
| 75 | 권4-18 | 俄義約之母<br>*Katharina<br>Elisabeth Goethe     | 西-독일   | 괴테 *1731~1808년간              | 18    | 시인 괴테의<br>어머니                | 어머니,<br>“괴테의 어머니”                     | 西洋品行論             |
| 76 | 권4-19 | 忠女福<br>*福                                   | 日      | 天明8 2월에 포상<br>*1788년경        | 18    | 시종, 죽은<br>남편의 직업을<br>이음      | 본명, 아내,<br>“복은 아무개의<br>아내이다.”         | 一話一言,<br>野史       |
| 77 | 권4-20 | 藍巴耶<br>*Marie<br>Thérèse Louise<br>of Savoy | 西-프랑스  | 랑발 *1749~1792년간              | 18    | 황후의 시녀                       | 본명,<br>“랑발은”                          | Woman's<br>Record |
| 78 | 권4-21 | 白倫透<br>*Pétronille<br>Grosso                | 西-스페인  |                              |       | 시종, 가업                       | 본명, 딸,<br>“페토니엘은~”                    | 修身鑑               |
| 79 | 권4-22 | 若安達亜克<br>*Jeanne<br>d'Arc                   | 西-프랑스  | 1412~1431년                   | 15    | 농민, 戰士                       | 본명,<br>“잔 다르크는”                       |                   |
| 80 | 권4-23 | 撒姑立倍涉<br>*Sarah<br>Franklin Bache           | 西-미국   | 1780년 흑한기 사건<br>*1743~1808년간 | 18    | 상인의 아내,<br>전쟁에서 남편과<br>애국 활동 | 본명, 아내, 딸,<br>“사라<br>바첼은~아내~딸로”       | Woman's<br>Record |
| 81 | 권4-24 | 亜俄底那<br>*Agustina de<br>Aragón              | 西-스페인  | 1808년 전쟁<br>*1786~1857년간     | 19    | 서민,<br>전쟁에 앞장섬,<br>표창, 군인    | 본명,<br>“아구스티나는”                       | Woman's<br>Record |
| 82 | 권5-01 | 徳川秀忠乳母<br>*大姥局                              | 日      | 도쿠가와 히데타다<br>*1525~1613년간    | 16    | 도쿠가와<br>히데타다의<br>유모          | 유모,<br>“도쿠가와 히데타다의<br>유모는”            | 野史,<br>女子立志篇      |

| no | 권호-<br>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83 | 권5-02     | 徳川頼宣母<br>蔭山氏<br>*養珠院   | 日     | 도쿠가와 요리노부<br>*1577~1653년간                                   | 17  | 도쿠가와<br>요리노부의<br>어머니       | 어머니, 성씨,<br>“도쿠가와 요리노부의<br>어머니 가계야마”             | 夜鶴集,<br>野史<br>近古史談 |
| 84 | 권5-03     | 本阿弥光悦母<br>*妙秀          | 日     | 혼마이 고에쓰<br>*1529~1618년간                                     | 16  | 혼마이<br>고에쓰의<br>어머니         | 어머니, 본명, 아내<br>“혼아미 고에쓰의<br>어머니는 이름이<br>묘슈라 한다.” | 空中齊草抄              |
| 85 | 권5-04     | 徳川吉宗母巨<br>勢氏<br>*淨円院   | 日     | 正徳6, 도쿠가와<br>요시무네 등 *1716년,<br>1655~1726년간                  | 18  | 도쿠가와<br>요시무네의<br>어머니       | 어머니, 성씨,<br>“도쿠가와 요시무네의<br>어머니 고세 씨”             | 夜鶴集                |
| 86 | 권5-05     | 齊桓衛姬<br>*衛姬            | 中     | 제나라 환공<br>*BC685~BC643년                                     | BC7 | 환공의 아내                     | 본명, 아내, “위희는<br>제나라 환공의 아내”                      | 劉向列女伝              |
| 87 | 권5-06     | 晋文齊姜<br>*齊姜            | 中     | 진의 문공 *제나라<br>BC636 이전(진문공<br>집권전)                          | BC7 | 문공의 어머니                    | 본명, 딸, 아내,<br>“제강은~딸~아내”                         | 劉向列女伝              |
| 88 | 권5-07     | 曹禧氏妻                   | 中     | 조나라 희부기<br>*춘추시대 조나라,<br>BC1046~BC487                       | BC7 | 관리(대부)의<br>아내              | 아내,<br>“희부기의 아내가”                                | 劉向列女伝              |
| 89 | 권5-08     | 晋羊叔姬<br>*叔姬            | 中     | 양설자, 숙향 *춘추시대<br>진나라 BC1042~BC376,<br>숙향 활약은<br>BC546~536년간 | BC6 | 양설자의 아내                    | 본명, 아내, 어머니,<br>“숙희는~아내~<br>어머니로”                | 劉向列女伝              |
| 90 | 권5-09     | 魯漆室女                   | 中     | 노나라 穆公<br>*BC415~377년간                                      | BC4 | 범부                         | 별칭, 지역, “노나라<br>칠실에 사는 여성”                       | 劉向列女伝              |
| 91 | 권5-10     | 衛姑定姜<br>*定姜            | 中     | 위나라 定公 *衛定公,<br>?~BC577                                     | BC6 | 왕(정공)의<br>아내               | 어머니, 본명, 아내,<br>“위나라 시어머니<br>정강은~아내로”            | 劉向列女伝              |
| 92 | 권5-11     | 趙將趙括母                  | 中     | 조나라 孝成王, 조괄<br>장군 *BC260                                    | BC3 | 장군 조괄의<br>어머니              | 아내, 어머니,<br>“조나라 장수 조사의<br>아내, 조괄의 어머니”          | 劉向列女伝              |
| 93 | 권5-12     | 樂羊子妻                   | 中     | 한나라 樂羊子<br>*BC202~BC220                                     | BC3 | 선비 악양자의<br>아내              | 아내,<br>“악양자의 아내”                                 | 劉向列女伝<br>(續上) 추정   |
| 94 | 권5-13     | 紫式部<br>*紫式部            | 日     | 겐지모노 가타리 저술<br>*헤이안 중기<br>970?~1014?년간                      | 10  | 박학다식한 재녀,<br>겐지모노가타리<br>집필 | 본명, 딸, 아내,<br>“무라사키<br>시키부는~딸~아내로”               | 大日本史列<br>女伝, 女鑑    |
| 95 | 권5-14     | 曹世齊妻<br>*班昭            | 中     | 한나라 和帝<br>*49?~120?년간                                       | 1   | 박학한 재녀,<br>한서 등 다수<br>집필   | 아내, 딸, 본명,<br>“조세제의 아내~딸~<br>이름이 소라 한다.”         | 劉向列女伝<br>(續上)      |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96  | 권5-15 | 羅拉<br>*Laura Maria<br>Caterina Bassi<br>Veratti | 西-이탈리아 | 1711~1778년                              | 18  | 재녀,<br>학자, 대학교수                   | 본명,<br>“로라는”                              | Woman's<br>Record |
| 97  | 권5-16 | 加羅林路古勒西<br>*Caroline<br>Lucretia<br>Herschel    | 西-독일   | 허설 *1750~1848년간                         | 18  | 천문학 연구<br>보좌,<br>표창,<br>천문학회회원    | 본명, 누이,<br>“캐롤라인<br>루크레티아는 허설의<br>누이로”    | Woman's<br>Record |
| 98  | 권5-17 | 路古勒西馬利大<br>關遜<br>*Lucretia Maria<br>Davidson    | 西-미국   | *1808~1825년간                            | 19  | 수재,<br>가난으로<br>학업포기,<br>후원으로 고등교육 | 본명, 딸,<br>“루크레티아 마리아<br>데이비스는 박사의<br>차녀로” | Woman's<br>Record |
| 99  | 권6-01 | 土肥二郎夷<br>平妻                                     | 日      | 도이 사네히라 *헤이안<br>말기, 미나모토노거병시기,<br>1180년 | 12  | 가신(무사)의<br>아내                     | 아내,<br>“도이의 아들<br>사네히라의 아내”               | 姫鑑                |
| 100 | 권6-02 | 鳥居與七郎妻                                          | 日      | 도리이 요시시치로<br>*?-1573년간                  | 16  | 무사의 아내,<br>무사의 누이                 | 아내, 누이,<br>“도리이 요시시치로의<br>아내~”            | 女子立志篇             |
| 101 | 권6-03 | 奥村助右衛門妻<br>*松樹院 加藤氏                             | 日      | 天正11 *1583년                             | 16  | 무사의 아내                            | 아내,<br>“오쿠무라 스케에몽의<br>아내는”                | 姫鑑                |
| 102 | 권6-04 | 山名禪高妻                                           | 日      | 야마나 도요쿠니<br>*1548~1626년간                | 16  | 무사의 아내                            | 아내,<br>“야마나 겐고의 아내는”                      | 姫鑑                |
| 103 | 권6-05 | 細川忠興夫人<br>*細川ガラシャ                               | 日      | 天正7 결혼, 慶長5<br>전투 *1579~1600년간          | 16  | 무사의 아내                            | 아내, 성씨, 딸,<br>“호소카와 다다오키의<br>부인 유임 씨는~팔로” | 野史                |
| 104 | 권6-06 | 堀部金丸女<br>*堀部ほり/<br>きち                           | 日      | 호리베 가나마루<br>*1675~1720년간                | 17  | 무사의 딸,<br>무사의 아내,<br>여승           | 딸, 본명,<br>“호리베 가나마루의<br>딸을 사치라고 불렀다.”     | 女子立志篇             |
| 105 | 권6-07 | 楚平伯羸<br>*伯羸                                     | 中      | 초나라 평왕, 오나라<br>습격 *BC506년경              | 6   | 제후의 아내                            | 본명, 딸, 아내, 어머니,<br>“백영은~딸~아내~어머니로”        | 劉向列女伝             |
| 106 | 권6-08 | 楊夫人                                             | 中      | 한나라 양창 *楊敞,<br>전한 후기, ?~BC74            | BC1 | 관리(제상)의<br>아내                     | 아내,<br>“양의 부인은”                           | 劉向列女伝             |
| 107 | 권6-09 | 楊烈婦                                             | 中      | 이희열의 습격 *786년<br>이전, 당나라                | 8   | 관리(혹은<br>무장)의 아내                  | 성씨, 아내,<br>“양열부 는 당나라<br>이간의 아내이다.”       | 劉向列女伝<br>(續上)     |
| 108 | 권6-10 | 韓氏女<br>*韓希孟                                     | 中      | 開慶元年 *1259년                             | 13  | 제상의 5대손                           | 본명,<br>“송나라 희맹 한 씨는”                      | 宋史,<br>新統列女伝      |

| no  | 권호-<br>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109 | 권6-11     | 蘭氏                                         | 中      | 명나라 진우량<br>*1316~1363년간                                      | 14          | 난이 일어나자<br>혈서를 쓰고 자살         | 성씨,<br>“린 씨는”                         | 劉向列女伝<br>(続下) |
| 110 | 권6-12     | 盧妻妙惠<br>*李妙惠                               | 中      | 명나라 成化<br>*1465~1487년간                                       | 15          | 선비의 아내                       | 본명, 아내,<br>“묘혜는 노의 아내로”               | 劉向列女<br>伝(続下) |
| 111 | 권6-13     | 達涉夫人<br>*Marguerite de<br>Foix Candale     | 西-프랑스  | 1588년의 일<br>*1568~1593간                                      | 16          | 공작부인                         | 아내,<br>“공작부인”                         | 西洋列女伝         |
| 112 | 권6-14     | 葛羅周の妻<br>*Maria van<br>Reigersberch        | 西-네덜란드 | 네덜란드 신학자<br>그로티우스, 수감 생활<br>*1619~1621년간                     | 17          | 신학자의 아내                      | 아내,<br>“그로티우스의 아내”                    | 西洋品行論         |
| 113 | 권6-15     | 多勒梅兒                                       | 西-영국   | 영국 내전<br>*1639~1651년                                         | 17          | 남편 뜻을 이어<br>집과 마을을 지키        | 본명,<br>“트레이무일은”                       | 西洋品行論         |
| 114 | 권6-16     | 巴威畧の達涉<br>*The Duchess<br>of Bavaria       | 西-독일   | 독일 콘라드3세<br>*1138~1152년                                      | 12          | 공작부인                         | 아내,<br>“바바리아의 공작부인”                   | 西洋列女伝         |
| 115 | 권6-17     | 蘇瓦突堡の女侯<br>*The Countess<br>of Schwarzburg | 西-독일   | 독일 카를5세<br>*1530~1556년                                       | 16          | 여후                           | 별칭,<br>“슈왈츠버그의 여후”                    | 修身鑑           |
| 116 | 권6-18     | 佛蘭格林の夫人<br>*Jane Franklin                  | 西-영국   | 영국 항해사 프랭클린<br>행방불명 이후 수색<br>작업 *1848년 수색<br>시작, 1791~1875년간 | 19          | 항해사의 아내,<br>남편을 찾아<br>항해, 포상 | 아내,<br>“프랭클린의 부인”                     | 西洋品行論         |
| 117 | 권6-19     | 老婆龜                                        | 日      | 도쿠가와 막부 치세                                                   | 17~19       | 노파                           | 별칭,<br>“노파 가메”                        | 野史            |
| 118 | 권6-20     | 楚野弁女                                       | 中      | 鄭簡公 때 사건<br>*BC570~BC530                                     | BC6         | 마차로 이동 중<br>대부를 꾸짖음          | 별칭, 아내,<br>“초야의 말잘하는<br>여성은 소 씨의 아내로” | 劉向列女伝         |
| 119 | 권6-21     | 齊女徐吾<br>*徐吾                                | 中      | 전국시대 제나라<br>*BC386~BC221                                     | BC4~<br>BC3 | 가난한 부인,<br>품팔이               | 본명,<br>“제나라 여성 서오”                    | 劉向列女伝         |
| 120 | 권6-22     | 哥爾尼利<br>*Cornelia<br>Scipionis<br>Africana | 西-이탈리아 | 로마 장군 스키피오<br>*BC190~BC115                                   | BC2         | 명성있는 부인,<br>집회참석             | 본명, 딸,<br>“코르넬리아는~”                   | 修身鑑           |
| 121 | 권6-23     | 倫屈維爾の女侯<br>*Anne-Geneviè<br>ve de Bourbon  | 西-프랑스  | 프랑스 루이14세<br>*1619~1679년                                     | 17          | 여후                           | 별칭,<br>“롱그빌의 여후는”                     | 修身鑑           |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br>(*본명<br>필자조사)                                                                                      | 출신 국가 | 활약 시기<br>(*필자조사)                        | 세기 | 신분                        | 소개 방법                             | 출전                |
|-----|-------|-------------------------------------------------------------------------------------------------------------|-------|-----------------------------------------|----|---------------------------|-----------------------------------|-------------------|
| 122 | 권6-24 | 綿多嫩<br>*Françoise<br>d'Aubigné,<br>Marquise de<br>Maintenon                                                 | 西-프랑스 | 프랑스 루이14세<br>*1635~1719년                | 17 | 귀족, 시인의<br>아내,<br>왕자들의 보모 | 본명, 손녀, 아내,<br>“귀족<br>맹트농은~손녀~아내” | 修身鑑               |
| 123 | 권6-25 | 仁恵婦女社<br>の看護人                                                                                               | 西-프랑스 | 빈센트 드 폴이 창립한<br>인혜부녀사 *1625년<br>애덕부인회설립 | 17 | 기독교부인회<br>부인              | 직업,<br>“인혜부녀사의 간호인”               | 修身鑑               |
| 124 | 권6-26 | 加馬馬兒<br>*Kamāmalu<br>Kalani-Kuaʻana<br>-o-Kamehameha<br>u-Kekūāiwa-o-<br>kalani-Kealiʻi-H<br>oʻopiʻi-a-Walu | 西-하와이 | 1802~1824년                              | 19 | 왕비                        | 본명, 아내,<br>“카마 말루는<br>리호리호의 왕비로”  | Woman's<br>Record |

우선, 출신 국가는 선행연구에서 ‘일본, 중국, 서양’이라는 형태로 대략적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후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구분은 덕목 중심으로 각 국가별 사례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 인물에 초점을 맞출 경우 선행된 연구와 비교해 더 많은 정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지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미상으로 파악한 경우도 예화의 에피소드를 단서로 인물과 국가를 추정할 수 있었다.

활약 시기는 인물의 출현 시대 혹은 시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물의 삶이나 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물론 예화에서 인물의 생몰년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적은 사례에 불과하고, 또 필자가 실존 인물의 전기를 조사해 비교했을 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정보도 있었다. 그 외 대부분은 인물이 활약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가운데 특정의 정보, 예를 들어 전쟁(사건)이나 국왕(치세)에 대한 언급처럼 간접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활약 시기를 추정했다. 따라서 예화 속에 언급되는 시대 정보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그 외 간접 정보를 통해 추정한 연대를 필자조사 사항(\*표)으로 명기했다. 그리고 이를 세기(century)로 수렴해 분류했다. 무엇보다 일본, 중국, 서양이 당시까지 통일되지 않은 역사관 속에

서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지, 그 소개 양식이 갖는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신분 및 소개 방식은 그 인물의 직업이나 계급을 포함한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정보로 구성하였다. 『婦女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분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신, 귀족, 평민, 무사, 군인, 황족, 천황’<sup>24)</sup>과 같은 분류를 하고 있는데, 『婦女鑑』은 여자용 수신 교과서라는 특징상 여성의 신분이 관련 남성, 즉 아버지, 남편, 아들의 신분, 직업 정보에 의해 인식된다. 물론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도 있지만, 소개 방식이 ‘~의 딸, ~아내, ~어머니’로 서술되는 사례가 많다. 이외 출신 지역이나 직업명을 붙여 별칭처럼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분은 인물의 소개 방식이 갖는 특징과 함께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보와 함께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당시 누구의 아내라는 지위가 ‘夫人’이라는 하나의 특정 직업군으로도 분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직분이 등장하는 만큼 일본, 중국, 서양의 소개 양상이 보이는 특성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 요소는 모두 『婦女鑑』에 소개되고 있는 예화 내용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인물의 실제 전기적 요소를 예화의 출전이나 현재의 기록 등을 조사해 검토함으로써 인물의 본명과 출신 국가, 활약 시기 등을 더 명확히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婦女鑑』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출전과의 비교분석 등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텍스트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전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원소스로 삼고 필자조사 사항을 추가 정보로 기입했다. 원전 상에 내용의 오류가 있다면 그 역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마지막에 예화의 출전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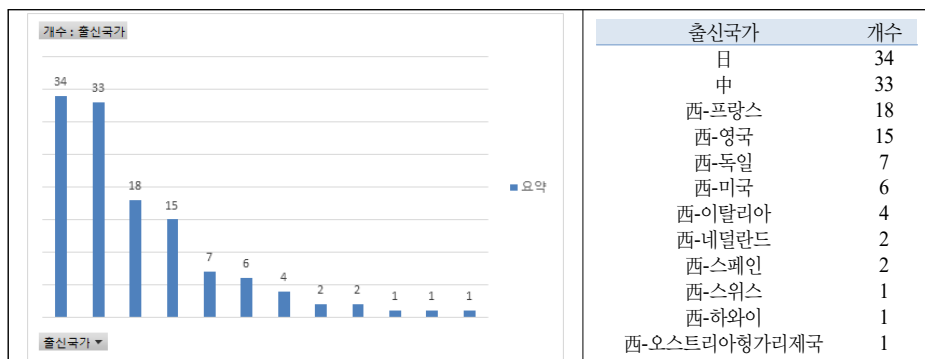
물론 인물 124명의 모든 전기적 요소를 출전과 비교, 검토하고 또 기존에 인용하고 있는 기록과의 차이 등을 상세하게 논의하는 단계까지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근대 전환기 일본의 여자용 수신 교과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婦女鑑』의 인물 구성에 있어서의 기초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의 수신 교과서가 갖는 특징에 비교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구 지평을 확대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4) 김순전·박선희, 앞의 논문, 18면.

### Ⅲ. 경계를 넘는 경험: 출신 국가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

『婦女鑑』에서 주된 메신저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동안 예화의 개수에 따라 120명으로 출신 국가는 ‘일본-34, 중국-33, 서양-54’ 정도의 비율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이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접근한 스가노 노리코(菅野則子)는 서양 여성의 출신 지역을 분류했는데, 프랑스-18개, 영국-9개, 독일-7개, 미국-6개, 이탈리아-4개, 스코틀랜드-3개, 네덜란드-2개, 스페인-2개, 스위스-1개, 하와이-1개, 그리고 게르만-1개로 확인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 스가노는 권2에 등장하는 예화 3개(표1의 연번 권2-04 波立的那の妻塞斯達, 권2-11 拔克蘭, 권2-12 發拉第の妻)에 대해서는 출신지를 미상으로 파악했다.<sup>25)</sup>

그러나 필자의 분석 결과 게르만에 해당하는 예화(권2-08 亜耳巴地侯の夫人)는 슬로베니아의 탄광에서 노역을 하던 남성의 이야기로 주된 메신저가 되는 여성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귀족(후작의 부인)이었다. 예화 마지막에 그들이 ‘빈’이라는 곳으로 돌아가 작위를 되찾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 역시 해당 여성의 출신지를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으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상으로 되어 있는 3명 역시 에피소드와 시대 배경 등에 기초해 조사한 결과 1명은 이탈리아(시칠리아), 2명은 영국 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婦女鑑』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의 출신 국가는 아래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그래프 1〉 출신 국가별 분포

25) 菅野則子, 「望まれる女性像-『幼學綱要』・『婦女鑑』を中心に」, 『帝京史学』 26, 2011, 167~169면.

선행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 지역 출신을 3명(권1-10 黒連窩加, 권2-11 哈米爾敦의妻, 권3-10 以撒伯拉額罕) 제시하였는데, 예화의 시대 배경이 18-19세기이고 당시 스코틀랜드가 영국 왕국과 정치적 연합을 한 이후로 영국을 구성하는 홈 네이션스(Home Nations)였기 때문에 출신 국가로는 영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출신 국가별로 보면 일본-34, 중국-33, 서양-57로 총 124명의 인물이 확인된다. 그 이유는 권2의 11, 12에 해당하는 예화에 각기 3명씩이 등장하고, 국가도 스위스-영국-영국, 독일-영국-영국처럼 구분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모두 婦道에 해당하고 역할이 남편의 연구나 저술을 보좌하는 내용이기 때문인지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婦道라는 덕목에 해당하는 사례로만 분류할 뿐 주목하고 있지 않다.<sup>26)</sup>

그리고 출신 국가를 분류하며 알 수 있는 특징은 서양의 경우 다양한 지역명이 등장하고 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서양에 집중되는 특징이다. 대략 26개의 예화에 지리 이동에 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고향에서 당시 변화했던 수도로 상경하는 정도라면 서양의 경우 독일에서 시베리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의 뉴욕, 혹은 호놀룰루에서 영국의 런던, 영국에서 북극해까지의 항해 여정 등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 이동의 에피소드를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덕목(12개)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孝行이나 勤儉, 識見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友愛-慈善-愛國/忠誠-雜德-婦道-才學-母道/處變의 순서로 나타난다. 해당 26개 내에서는 慈善-8, 婦道-7, 友愛/母道/雜德/處變-2, 愛國/忠誠/才學-1로 자선의 사례가 많지만, 자선의 경우 전체 18개에서 8개에 해당하므로 비율적으로는 두 번째로 높다.

우애는 전체적으로 3명인데 그중 2명이 지리 이동을 경험하고 특히 독일에서 러시아 페토르부르크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보인다(권1-11 百底安波). 목적은 감옥에 수감 중인 친오빠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베리아로 직접 구하러 가는 것이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 이동한 여성 역시 죄를 짓게 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런던에 제출하는

26) 越後純子, 앞의 책, 139~141면.

여정을 보여준다(권1-10 黒連窩加). 여동생의 입장에서 혹은 장녀의 입장에서 형제자매를 잘 돌보기 위해 낯설고도 험난한 여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관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용기있는 모습이 우애의 모범적 케이스로 선택된 것이다.

자선의 경우 남편이 고향을 떠나 각지로 부임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할 때 아내가 함께 수행하고 또 그곳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이나 구휼 활동을 하는 인물들에 해당한다. 특히 자선은 전체 비율이나 해당 예화 내 빈도수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덕목이 지리적 이동을 포함해 출신 국가를 떠나 이국의 낯선 지역을 경험한다는 에피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특히 이러한 예화에는 당시 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지명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는 당시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발의 열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에피소드 속에서 그 역할을 보면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남편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를 세우거나 빈민 혹은 병자를 돌보고 심지어 두창 예방법까지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 돋보인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평안함을 포기하고 주체적인 개인의 자격으로 업적을 일구는 혹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이웃을 돕는 선택을 한 여성들을 자선의 모델로 세우고 있다.

〈표 2〉 인물의 지리 이동 경험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    | 출신 국가            | 등장 지역 및 이동 경로                          | 편찬고본 덕목 |
|----|-------|----------|------------------|----------------------------------------|---------|
| 1  | 권1-10 | 黒連窩加     | 西-영국             | 스코틀랜드(딤프리스)→런던                         | 友愛      |
| 2  | 권1-11 | 百底安波     | 西-독일             | 독일→러시아<br>페토르부르크→시베리아→러시아<br>페토르부르크→독일 | 友愛      |
| 3  | 권1-16 | 美濃部伊織妻   | 日                | 이와노→에도→이와노→에도→이와노                      | 婦道      |
| 4  | 권1-20 | 佐琪女      | 日                | 수레에 남편을 태우고, 아이를 업고 온천하러 여행            | 婦道      |
| 5  | 권2-03 | 王受命妻     | 中                | 수도로 상경                                 | 婦道      |
| 6  | 권2-06 | 安弗拉斯曼    | 西-영국             | (영국)→이탈리아                              | 婦道      |
| 7  | 권2-07 | 馬屈利多     | 西-프랑스            | 프랑스 쥐라주(Jura)→스위스 경계의 산 이동             | 婦道      |
| 8  | 권2-08 | 亜耳巴地侯の夫人 | 西-오스트리아<br>헝가리제국 | 알프스산→독일→슬로베니아 이도리아 탄광, 빈               | 婦道      |

| no | 권호-연번 | 예화 제목   | 출신 국가  | 등장 지역 및 이동 경로                       | 편찬고본<br>덕목 |
|----|-------|---------|--------|-------------------------------------|------------|
| 9  | 권2-09 | 脫勒迦夫人   | 西-미국   | 워싱턴DC 백악관→고향 버지니아                   | 婦道         |
| 10 | 권3-03 | 厚瓦徳の妻   | 西-영국   | 런던 여행                               | 慈善         |
| 11 | 권3-08 | 維匡      | 西-프랑스  | 보르도→앙굴렘→파리                          | 慈善         |
| 12 | 권3-09 | 馬理夫人    | 西-영국   | 런던→터키→베오그라드→영국                      | 慈善         |
| 13 | 권3-10 | 以撒伯拉額罕  | 西-영국   | 스코틀랜드→캐나다→안티과(과테말라)→스코틀랜드→미국 뉴욕(5회) | 慈善         |
| 14 | 권3-14 | 維爾孫夫人   | 西-영국   | 영국→인도                               | 慈善         |
| 15 | 권3-15 | 特多里蒙    | 西-프랑스  | 자신의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                  | 慈善         |
| 16 | 권3-18 | 以利沙伯弗来  | 西-영국   | 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덴마크→벨기에→프러시아→영국      | 慈善         |
| 17 | 권3-19 | 額黎咀林    | 西-영국   |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감                        | 慈善         |
| 18 | 권4-07 | 鄒孟軻母    | 中      | 무덤가→시장 주변→학교 주변 *맹자의 어머니 사례         | 母道         |
| 19 | 권4-16 | 舌弗爾之母   | 西-네덜란드 | 네덜란드, 파리                            | 母道         |
| 20 | 권4-20 | 藍巴耶     | 西-프랑스  | 이탈리아→프랑스→바렌→영국→파리(감옥)               | 忠誠         |
| 21 | 권4-22 | 若安達垂克   | 西-프랑스  | 프랑스→영국→오를레앙(프랑스지방)                  | 愛國         |
| 22 | 권5-16 | 加羅林路古勒西 | 西-독일   | 독일에서 태어남→영국 국왕을 섬김                  | 才學         |
| 23 | 권6-14 | 葛羅周の妻   | 西-네덜란드 | 네덜란드→프랑스                            | 處變         |
| 24 | 권6-18 | 佛蘭格林の夫人 | 西-영국   | 영국→북빙양(북극해) *배로 이동                  | 處變         |
| 25 | 권6-20 | 楚野弁女    | 中      | 마차 타고 이동 중 벌어진 일                    | 雜德         |
| 26 | 권6-26 | 加馬馬兒    | 西-하와이  | 호놀룰루→영국 런던 *배로 이동                   | 雜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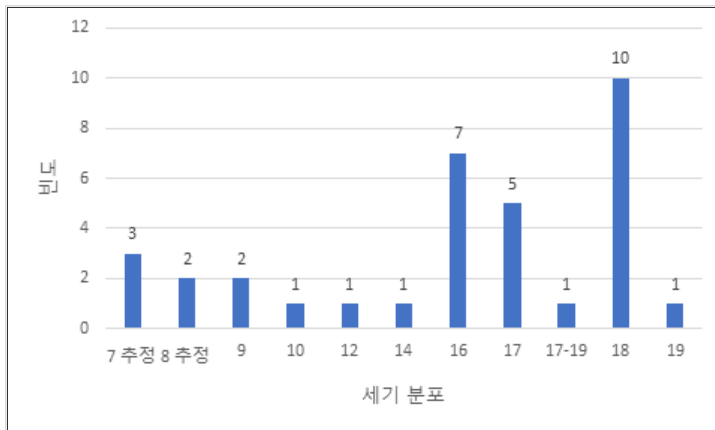
#### IV. 대국의식의 변화와 근대 전환기적 양상: 활약 시기 편차에 따른 특징

이 장에서는 메신저가 되는 주요 여성의 활약 시기를 고찰해 그 특징을 도출해 보겠다.

먼저 일본 출신의 여성들 중 정확한 시대 배경을 알 수 없는 인물은 6명인데(권 1-03, 권1-18, 권1-20, 권2-13, 권2-14, 권6-19), 아키국, 히타치국, 빈고국, 데와국,

히다국과 같은 지명의 사용 연대를 근거로 7~8세기로 추정했다. 1명은 ‘도쿠가와 막부 치세의 한 노파’로 소개되고 있어 넓게 17~19세기로 활약 시기를 추정했다. 『婦女鑑』 출간을 준비한 기간이 1884~1887년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가에이(嘉永) 때의 예화도 등장한다(권1-09). 가에이는 西曆 1848년으로 에도 막부가 1867년에 막을 내리므로 에도시대 말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19세기 중반까지 활약한 인물을 시야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화의 사례처럼 일본은 연호(元号)를 기준으로 和曆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文化6에 71세로 서거했다.’(권1-16)거나 ‘承和8에 표창을 받았다.’(권1-01), ‘正徳6,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어머니 고세 씨’(권5-04) 등 비교적 시기가 정확한 경우 연호가 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쿠가와 요리노부의 어머니’(권5-02), ‘호리베 가나마루의 딸’(권6-06)처럼 유명한 무사의 전기적 요소를 연상시켜 그 시대 배경을 인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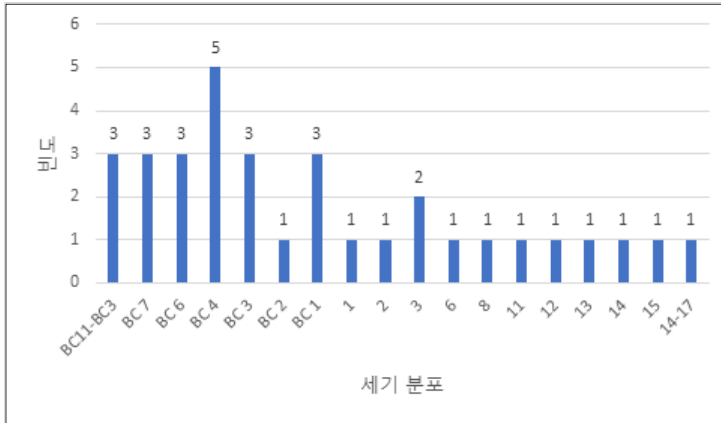


〈그래프 2〉 활약 시기-일본

일본의 역사 구분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대 구분법에 따라 어느 시기가 가장 두드러지는지 살펴보면 헤이안(平安) 시대를 포함한 古代에 해당하는 시기에 활동한 인물은 8명(≒24%)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저자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포함되어 있다. 中世에 해당하는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전국시대(戦国・安土桃山時代 포함)를 배경으로

활약한 인물은 9명(≒26%)으로 대부분 무사의 아내이다. 近世인 에도가 배경이 되는 것은 17명으로 50% 이상이 이 시기에 활약하였다. 특히 18세기가 시대 배경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남편의 가업(주군을 섬기는 시종)을 잇거나 남편이 부재한 경우 집안을 꾸려나가며 자식들을 출세시키는 지조, 절개, 품행이 높은 인물들이다. 이는 에도시대 이에(家) 중심의 공동체 의식과도 관련이 깊어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기원전(BC)을 시대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 21명으로 전체 33명을 기준으로 볼 때 60% 이상이다. 나머지 12명은 명나라(1368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이 9명(≒27%), 이후가 3명(≒9%)이다. 기원전에 해당하는 시대 배경은 춘추전국 초기의 魯國을 시작으로 齊國, 晉國, 楚國, 秦國, 蔡國, 韓國, 魏國, 趙國, 그리고 漢國으로 이어지며 기원후의 東晉, 唐國 등의 고대국가로 넘어간다. 중국은 이렇게 대부분 왕조 국가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고, 송나라와 명나라의 경우 ‘開慶元年(권6-10)’, ‘명나라 成化 때의 일’(권6-12)처럼 연호(年號)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 에피소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프 3〉 활약 시기-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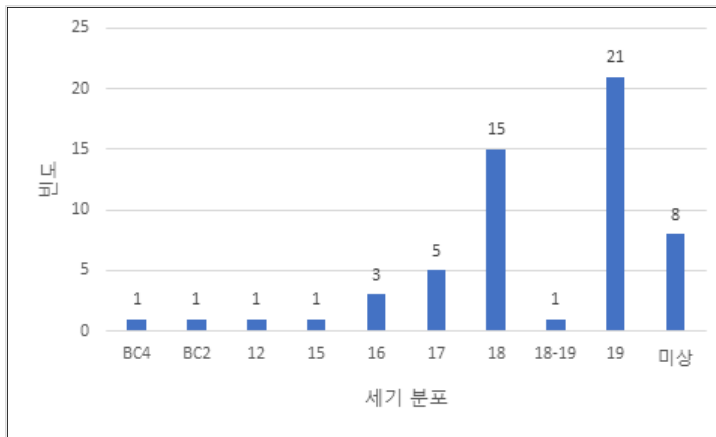
서양의 경우는 8명이 시대 배경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출신 국가는 독일 1명(권2-12), 스페인 1명(권4-21), 프랑스 6명(권1-06, 권2-07, 권3-05, 권3-06, 권3-07, 권3-12)이다. 대부분 『修身鑑』을 출전으로 하는 인물들인데, 이 책은 1878년에 서양의 예화를 소개하기 위해 편찬했다. 이 출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서가 프랑스의 테오도르 앙리 바라우의 저서이다.<sup>27)</sup>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라우의 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책은 아니고 학교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도덕, 예의를 소개하고 있다. 첫 시작이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시작해서 겸손과 이타심, 절제와 인내, 용기와 재량 등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설파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선, 친절, 인정, 헌신, 관대’처럼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예의에 집중하고 있다.<sup>28)</sup> 프랑스 공공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초등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활용되었는데, 16세기 이후를 주요한 시대 배경으로 하는 듯하지만 기원전 2세기의 인물도 등장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비교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시대를 특정할 수 없지만 예화의 내용으로 볼 때 저술가 남편을 보조한 여성처럼 남편의 일을 도와 생계를 꾸리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는 자선에 관한 여성상이 많다. 효행과 충성에 해당하는 여성도 있는데, 맹인이 된 아버지의 눈이 되어 효도하는 여성(권1-06)이나 아버지가 섬긴 가난한 육군대좌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섬기며 충성을 다했다는 여성(권4-21) 등은 일본편에서도 다루어지는 여성상과 상당 부분 오버랩된다. 충성에 해당하는 예화는 전체에서 3편인데, 모두 남편이나 아버지가 모시던 주군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인물의 활약 시기에 관한 요소가 누락되어도 일본 출신의 여성을 연상하며 비교해 보면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연상 작용이 일본의 여성과 서양 여성을 대등하게 평가하는 데 효율성을 높여준다.

27) 프랑스 원서 「モラル・プラチック」를 기초해 편집했다고 하는데, 원서명은 Th. H. Barrau, *Livre de morale pratique, ou choix de préceptes et de beaux exemples, destiné à la lecture courante dans les école et dans les familles* (Nouv. éd., Paris: Hachette et Cie, 1872)이다. 越後純子, 「『婦女鑑』の例話の出典」, 『人間文化創成科学論叢』 15, 2013, 5면.

28) Th. H. Barrau, *Livre de morale pratique, ou choix de préceptes et de beaux exemples, destiné à la lecture courante dans les école et dans les familles*, Nouv. éd., Paris: Hachette et Cie, 1901, 463면. 1872년판은 구할 수 없어 1901년 판본을 참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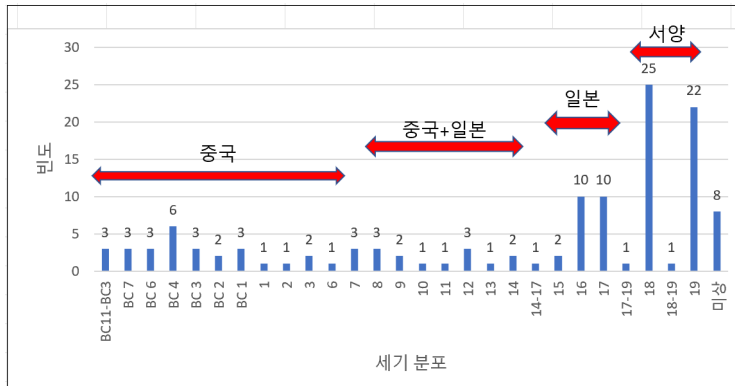
〈그래프 4〉 활약 시기-서양

서양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16세기 이후로 4명(≒7%)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근대기를 배경으로 활약했다. 특히 영국 여성은 15명 중 1명(17세기)을 제외하면 18-19세기에 집중해 등장한다. 선행연구에서 서양 여성 중 프랑스인이 가장 많은 것을 지적하며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sup>29)</sup> 영국 여성의 묘사 형태가 갖는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영국과 일본의 관계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전 시대에 걸쳐 고르게 등장하는 반면 영국 여성은 18~19세기에 편중되어 있다. 에피소드 역시 영국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저널리스트를 포함해 두창 예방법을 개발하고 인도에서 여성 교육을 이끈 업적이나 실종된 남편을 찾아 북극해를 향해하는 여성처럼 이른바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상과 예술가나 학자인 남편을 보조하여 위업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여성상이 대부분이다. 프랑스 여성들은 잔다르크와 같은 전사나 마리 앙투아네트를 모시던 시녀(랑발)를 통해 충성과 애국의 메신저로 등장시키는 것 외에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관대한 여성상이 묘사된다.

이상 『婦女鑑』 인물이 주요하게 활약했던 시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 다음과 같다. 총 124명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60명이 17세기 이후에 주로 활약했음을

29) 菅野則子, 越後純子 앞의 논문.

알 수 있다.



〈그래프 5〉 전체 활약 시기에서 일본, 중국, 서양의 편재(비중)

앞서 일본, 중국, 서양의 개별 분포도를 참고로 전체 분포에 있어서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일본이 7세기를 전후해 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古代에 해당하는 시기는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8-15세기 사이는 중국과 일본이 혼재한다. 그러다 16-17세기에는 일본이 서양보다 2배 정도 더 많고, 18-19세기는 서양이 일본보다 2배 많다. 이는 『婦女鑑』이 19세기 근대 전환기의 일본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 중국 중심의 대국 의식이 서양으로 재편되는 과정뿐 아니라 일본이 에도 시대, 즉 17세기 이후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서양의 인물들과 오버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양 인물을 많이 등장시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신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더 생각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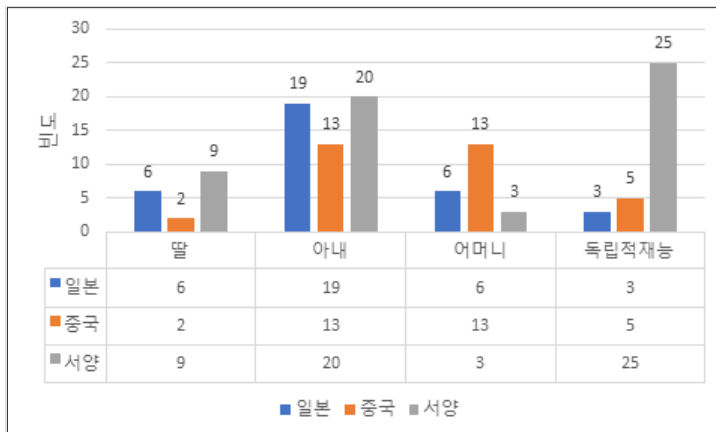
## V. 범주화되는 직분과 자아실현의 영역: 신분 및 사회적 지위로 본 특징

『婦女鑑』의 주요 메신저가 되는 여성의 신분 및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래프 6>과 같다. 이 장에서는 유사한 몇 가지 직업이나 신분을 묶어서 범주화하고 빈도수를 비교함으로써 일본, 중국, 서양의

편차를 분석해 보겠다.

범주화하여 분류할 기준은 먼저 누군가의 딸/아내/어머니처럼 ‘대자적’ 존재로 정의되는 지위이다. 『婦女鑑』이 여자 수신서로써 동서양의 여성만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소개 양식은 남성(아버지, 남편, 아들)의 계급과 출신 여하와 함께 연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독자적으로 과업을 이루었다고 해도 소개는 누구의 아내와 같이 상대화되고 있거나, 반대로 누구의 아내이지만 남편과 상관없이 교육자나 자선가로서 독립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2장 연구방법에서 설명했듯이 『婦女鑑』의 서술 방식은 남성에게 종속된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예외적인 경우는 대자적 존재로 서술되지만 남편을 보조하거나 남성의 자리(역할)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녀만의 능력, 즉 독자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술 방식이다. 이는 여성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자아실현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자적 존재로 묘사되는 여성의 지위 여부를 ‘딸-아내-어머니’, 그리고 ‘독립적 재능’으로 구분해 보고 이러한 범주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서민과 사회지도층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직업 및 신분의 성향을 살펴보았다.



〈그래프 6〉 『婦女鑑』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

전체적으로 볼 때 아내의 역할이 42%로 딸이나 어머니와 비교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아내가 56%(34명 중 19명) 이상이고, 서양도

35%(57명 중 20명) 이상이다. 반면 중국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동일 비중으로 등장한다.

이는 『婦女鑑』이 편찬된 시기가 일본에서 ‘양처현모’의 역할론이 성립되어 가는 과도기였음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한국에서 근대계몽기에 여성 교육의 목적을 어머니 역할에서 두고 ‘국가적 현모’의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모양처론이 탄생했다면,<sup>30)</sup> 일본은 무가 사회의 전통과 서양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근대 전환기에 양처현모론을 발명해 냈다. 특히 가업을 최우선시하며 가업의 계승과 번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가업도덕’이라는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던 近世 일본의 전통적 가치와 서양의 부부 중심의 가족상을 모델로 한 가부장제적 권력 구도가 합쳐지면서,<sup>31)</sup> 당시 ‘아내’라는 직분이 중요한 역할로서 인지되었다. 여성 교육이 ‘누군가의 양처가 되고 누군가의 현모가 되어 한 가정을 정리하고 자제들을 훈도할 수 있는 기질과 재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sup>32)</sup> 즉 아내라는 이상적 여성성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清末 이후 일본처럼 양처현모론이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婦德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부덕이란 ‘相夫教子’로 남편을 보조하고 아이를 교육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다.<sup>33)</sup>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초래된 일본과 중국의 여자 교육에 관한 목적과 내용의 변화를 동시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서 위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점은 『婦女鑑』에 실린 중국 여성들의 역할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동등한 비중으로 편성된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30)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2~150면.

31)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새봄, 「메이지 일본의 ‘양처현모’론 탄생의 맥락」, 『개념과 소통』 22, 2018, 41~73면 참조.

32) 『婦女鑑』이 간행된 해에 초대 문부대신이었던 모리 아리노리는 이와 같은 여자교육의 주안점을 발표하였다. 森有禮, 1887, 「明治二十年秋森文部大臣第三地方部学事巡視中演説ノ旨趣」, 森有禮/上沼八郎・犬塚孝明 編/大久保利謙 監修, 『新修森有禮全集 第二巻』, 文泉堂書店, 1998, 484~485면.

33) 김은희, 「清末 이래 1930년대까지의 中國의 女性 想像—賢母良妻論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63, 2013, 138~156면.

서양의 경우에는 아내의 비중 못지않게 눈에 띄는 수치가 ‘독립적 재능’이다. 독립적 재능이라는 분류 요소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 소개되었어도 예화의 주된 에피소드가 여성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계모’에 대한 예화는 모두 중국 여성으로 3개인데, 그중 2개는 전처의 자식을 훌륭한 장군과 선비로 키워낸 어머니상이 중심이고, 1개는 공적인 義를 위해 전처의 자식을 살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는 여성의 성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4-11). 전자는 장군, 선비의 어머니로, 후자는 독립적 재능으로 분류했다. 독립적 재능에 해당하는 여성 중에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여성들도 나오는데, 일본은 『겐지모노가타리』를 저술한 무라사키 시키부, 중국은 오빠의 뒤를 이어 『漢書』를 완성한 최초의 여성 사학자라 불리는 班昭이다. 이 둘은 본명을 포함해 아버지나 형제(오빠), 남편에 대한 소개도 같이 서술된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과 才學으로 남성들도 감탄할 만한 위업을 이루어 후대에 기릴 만함을 평가해 놓고 있다. 서양 여성 중에는 독일의 천문학자 캐롤라인 허셜(Caroline Lucretia Herschel)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오빠의 연구를 보조하다가 새로운 별자리와 성운 등을 발견하고 여성으로서는 얻기 힘든 천문학회 명예 회원으로 인정받은 과정이 모두 소개된다. 『婦女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과학자는 허셜이 유일한데, 그 외에도 서양 여성의 신분 성향이나 사회적 지위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양한 층위를 보여준다.

〈표 3〉 신분 성향 및 사회적 지위

\*괄호 속 숫자는 빈도수

| 국가 | 역할 | 서민    | 사회지도층  | 비고 |
|----|----|-------|--------|----|
| 일본 | 딸  | 범부    | 무사     |    |
|    |    | 농민(2) |        |    |
|    |    | 재봉사   |        |    |
|    |    | 종이자수  |        |    |
|    | 아내 | 농민(4) | 무사(10) |    |
|    |    | 시종    | 학자(3)  |    |
|    |    |       | 의사     |    |

19세기 후반 일본 여자교육의 모델이 된 여성들

| 국가 | 역할     | 서민    | 사회지도층 | 비고                           |
|----|--------|-------|-------|------------------------------|
| 일본 | 어머니    |       | 무사(4) |                              |
|    |        |       | 학자    |                              |
|    |        |       | 예술가   | *예술가: 서예, 다도                 |
|    | 독립적 재능 | 노파    | 저술가   | *저술가: 『겐지모노가타리』의 저자 무라사키 시키부 |
|    |        |       | 유모    |                              |
| 중국 | 딸      |       | 관료(2) | *관료: 태창령, 수령                 |
|    | 아내     | 범부(3) | 왕(2)  |                              |
|    |        |       | 관료(5) | *관료: 대부, 재상, 제후              |
|    |        |       | 선비(2) |                              |
|    |        |       | 장군    |                              |
|    | 어머니    | 품팔이   | 관료(6) | *관료: 경조윤, 대부, 재상             |
|    |        |       | 선비    | *품팔이: 방직                     |
|    |        |       | 장군(3) |                              |
|    | 독립적 재능 | 계모    | 학자    | *학자: 漢書 등을 집필한 반소            |
|    |        | 범부(2) |       |                              |
|    |        | 품팔이   |       | *품팔이: 방직                     |
| 서양 | 딸      | 범부(4) | 왕(2)  | *왕의 ‘누이’도 왕에 포함              |
|    |        | 상인    | 법관    |                              |
|    |        |       | 박사    |                              |
|    | 아내     | 범부(2) | 귀족(4) | *귀족: 후작, 백작, 제후              |
|    |        | 상인(2) | 왕     | *범부: 가난한, 미천한 부인             |
|    |        |       | 조각가   |                              |
|    |        |       | 박물학자  |                              |
|    |        |       | 지질학자  |                              |
|    |        |       | 철학자   |                              |
|    |        |       | 자선가   |                              |
|    |        |       | 의사    |                              |
|    |        |       | 항해사   | *항해사: 탐험가                    |
|    |        |       | 시인    |                              |

|    |        |        |        |                             |
|----|--------|--------|--------|-----------------------------|
| 서양 | 어머니    |        | 화가     |                             |
|    |        |        | 왕      | *왕: 대통령                     |
|    |        |        | 시인     |                             |
|    | 독립적 재능 | 품팔이(4) | 귀족(2)  | *품팔이: 방직, 직공                |
|    |        | 물장수    | 여후     | *귀족: 귀족, 황후 시녀, 왕자들의 보모     |
|    |        | 하녀     | 변호사    |                             |
|    |        | 범부(2)  | 의사     | *범부: 서민, 교도소교화자             |
|    |        | 등대지기   | 교육자    |                             |
|    |        | 전사(2)  | 자선가(2) | *전사: 잔 다르크와 아우구스티나          |
|    |        | 정원사    | 수재(2)  | *정원사: 포도원                   |
|    |        |        | 천문학자   | *천문학자: 별자리와 성운을 발견한 캐롤라인 허셜 |
|    |        |        | 시인     |                             |
|    |        |        | 왕비     |                             |

대자적 존재로 묘사되는 여성의 신분 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이 <표 3>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남편이나 아들 등의 신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본 것으로 해당 여성이 종사했던 직업은 아니다. 또한 상당히 긴 역사기에 걸쳐 각 국가마다 적용되었던 계급 체계도 달랐기 때문에 상세하게 분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크게 서민과 사회지도층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무사’는 중국의 경우 ‘관료’에 해당하고 서양에서는 ‘귀족’에 대응된다. 관료나 귀족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의 ‘유모’나 서양의 ‘여후, 왕비’는 대자적 서술이 아닌 해당 여성의 실제 직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학자의 경우 일본은 대부분 유학자인 데 반해 서양은 박물학, 지질학, 철학, 천문학처럼 전문 분야가 명기되어 있다. 예술가도 일본은 아들의 본명이 나오고 그가 서예나 다도에 능했던 예술가임을 필자의 조사로 특기해 놓은 것인 반면, 서양은 조각가, 화가, 시인처럼 구체화하여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범부에 해당하는 여성은 남편을 포함해 특별한 직업이 명기되지 않으면서 가정환경 등과 같은 요소를 통해 평범한 여인, 혹은 부인에 해당하는 인물로 필자가 분류한

호칭이다. 그중에는 미망인(寡婦)이나 홀로 사는 여성도 상당수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서민과 비교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2배(40:79의 비율)에 해당하고, 특히 중국의 경우가 3배(8:23의 비율)가량 많다. 자선가나 향해사(탐험가)는 서양에서만 등장하는 직업이다. 이를 기존 선행연구가 분류한 덕목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자선이라는 덕목 자체가 총 19개 중 일본 1개, 중국 1개, 그리고 서양이 17개에 해당한다. 이는 곧 자선이라는 덕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양 여성의 경우가 적합했고, 아울러 서양을 모델로 한 근대화 기획 속에서 자선이라는 도덕의 가치가 과거 전통 사회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선이 곧 문명화된 도덕률처럼 이상적 여성성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도덕률의 확장, 재편은 특히 雜德이라는 덕목에서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청렴-검소, 언변, 성실, 정직, 간병-간호, 문명-교화’를 담당하는 인물의 예화가 이에 해당하는데, 모두 독립적 재능에 해당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총 8명 중에 일본 1명, 중국 2명, 서양 5명으로 구성된 이 덕목은 일본의 경우 ‘청렴한 성품’의 여성, 중국의 경우는 둘 다 ‘언변이 좋은’ 여성이다. 서양은 부를 과시하지 않는 검소와 겸손,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쳐나가는 정직함과 성실함, 다친 군인을 포기하지 않고 성심껏 돌보는 인내와 성실함, 국가의 누습을 폐지하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문명국 영국에서도 부러움을 산 왕비의 교화력을 보여준다. 일견 婦德, 勤儉, 識見, 才學, 處變과 같은 덕목에 포함해도 이질감이 없을 듯한 이 여성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대자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에 가까운 개성있는 존재로 나온다는 점이다. 잡덕이라는 덕목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성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自立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Ⅵ. 맺음말

이상으로 『婦女鑑』의 인물 구성이 갖는 특징을 출신 국가의 분포, 활약 시기의 편차, 그리고 신분 및 사회적 지위 요소를 통해 살펴보았다.

『婦女鑑』은 인물이 중심이 된 열전형식의 교과서로 학습자는 주제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등장하는 여성의 정보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사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위업이나 주목할 만한 업적 등을 이루어내기까지 그 여성이 겪었던 역경이나 고난을 추체험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배우게 된다.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모방과 동일시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편찬자의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덕목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등장인물을 둘러싼 배경과 인물의 의지와 같은 간텍스트성이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인물 학습이 갖는 중요성에 주안을 둔 연구로서 기초적인 원소스를 분류해 제공하고 분석한 것이 본고가 갖는 의의일 것이다.

먼저 『婦女鑑』에 나타난 국가 분포는 일본-34, 중국-33, 서양-57로, 서양의 경우 예화의 개수보다 3명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18, 영국-15, 독일-7, 미국-6, 이탈리아-4, 네덜란드-2, 스페인-2, 스위스-1, 하와이-1,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1로 선행연구에 비해 영국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출신 여성들을 추가,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출신 국가를 분류하면서 서양의 경우 낯선 지역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에피소드가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이동에의 경험, 특히 국경과 인종, 민족과 종교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이 『婦女鑑』을 학습하는 여학생들의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세계관의 확대를 도모하고 추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기능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메신저가 되는 여성의 활약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고 그 편찬을 통해 일본, 중국, 서양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물의 출현 시대 혹은 시대 배경에 해당하는 이 정보는 각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연대기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표기의 차이 역시 당시의 역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호(元号)를 기준으로 和曆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일본은 그 외에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전기적 요소를 연상시켜 시대 배경을 전달한다. 중국은 기원전부터 시작해 명나라까지 가장 넓은 시기에 걸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주로 왕조 국가명을 통해 역사적 배경을 환기한다. 다만 청나라는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서양의 경우 다양한 대륙이 등장하기 때문에 통일된 형태를 제시할 수는 없다. 황제나 교황의 재위거나 전쟁 기간이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의 전기적 요소를 추정해 여성의 활약 시기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원전 11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활약 시기로 본 특징은 古代에 해당하는 기원전을 포함한 7세기까지는 중국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8-15세기 사이는 중국과 일본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혼재한다. 그러나 16-17세기에는 일본 여성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면서 서양보다 2배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 18-19세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서양 여성이 일본보다 2배 많다. 이는 『婦女鑑』이 19세기 근대 전환기의 일본 사정을 잘 반영하면서 과거 중국 중심의 대국의식이 서양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일본이 에도시대, 즉 17세기 이후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서양의 인물들과 오버랩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일본편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사의 아내가 모델로 많이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 50% 이상이다. 서양은 16세기 4명(≒7%)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17-19세기에 활약한 인물이고,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미상’인 경우가 8명 있다. 그러나 미상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비록 인물의 활약 시기에 관한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고 해도 일본 여성을 연상하며 읽으면 그 주제를 파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연상 작용이 일본의 여성과 서양 여성을 대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婦女鑑』의 메신저로 등장하는 여성의 신분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정리해 분석하였다. 이는 『婦女鑑』의 서술 방식이 갖는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婦女鑑』은 여자 수신서로써 동서양의 여성이 그 대상이지만, 소개 양식은 남성(아버지, 남편, 아들)의 계급과 출신 여하와 함께 연동되어 있다. 즉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처럼 대자적 존재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직분을 딸, 아내, 어머니로 범주화하는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말 근대 전환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여성의 범주화는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업을 최우선시하고 가업의 계승과 번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에’ 중심의 가업도덕이 강하게 적용되어 오던 사회였다. 그러다 서양처럼 부부 중심의 가족상을 모델로 한 가부장제적 권력 구도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아내’라는 직분이 중요한 위치로 인지되고 있는 것을 『婦女鑑』의 사례로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아내가 56% 이상을 차지하는데, 서양 35%, 중국 13%와 비교할 때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비중을 봐도 아내의 역할이 42%로 딸이나 어머니와 비교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아내라는 이상적 여성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자적인 존재로 서술되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들의 신분 성향도 중요하다. 소개 방식은 대자적 존재로 서술되지만 남편을 보조하거나 남성의 자리(역할)를 대체

하는 형태가 아닌 온전한 여성만의 능력으로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 여성상이 그것으로, 특히 서양 인물에게서 돋보인다. 일본, 중국과 다르게 서양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이루는 요소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직업군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도 『婦女鑑』에 서양 여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초래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생각해 보면, 아내는 이상적 여성성이 개발되듯이 당시 기존과 다른 여성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도덕관의 재편과 확장의 노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대부분이 서양 여성을 모델로 하고 있는 자선은 과거 전통 사회보다 근대화된 사회에서 더 중요한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문명국의 여성 사례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필하는 대표적인 덕목이다. 여기서 자선은 곧 문명화된 도덕률처럼 이상적 여성성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개발된 것이다. 도덕률의 확장, 재편은 잡덕이라는 덕목에서도 잘 드러났다. 청렴, 검소, 언변, 성실, 정직, 간호, 교화를 실천하는 인물들은 모두 독립적 재능에 해당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그녀들의 성품을 당시 보편화된 부덕, 근검, 식견, 재학, 처변과 같은 덕목에 포함하지 않고 잡덕으로 분류해 놓은 이유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여성들은 대자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에 가까운 개성있는 존재로 나온다. 즉 잡덕이라는 덕목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성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립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婦女鑑』은 유교 사회의, 혹은 근대 전환기의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학습 과정에서 모범적 여성상을 모방(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모범적 행적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추체험하고 나아가 타자와의 공감 능력을 형성한다. 수신 교과서인 『婦女鑑』을 반복과 모방의 세계가 아니라 재배치와 재의미화와 같은 표상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이유이다.

## 참고문헌

- 西村茂樹, 『婦女鑑』, 宮内省御藏版 1쇄판, 吉川半七, 1887  
宮内省御藏版 7쇄판, 郁文舎, 1926  
太政官布告第214号, “學事獎勵に關する被仰出書”(學制序文), 1872.8.3.  
森有禮, 1887, 「明治二十年秋森文部大臣第三地方部學事巡視中演說ノ旨趣」, 森有禮/ 上沼八郎・大塚孝明 編/ 大久保利謙 監修, 『新修森有禮全集 第二卷』, 文泉堂書店, 1998  
Th. H. Barrau, *Livre de morale pratique, ou choix de préceptes et de beaux exemples, destiné a la lecture courante dans les école et dans les familles*, Nouv. éd., Paris: Hachette et Cie, 1901
- 노명완·정혜승·윤준재,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 石田雄, 『近代日本政治構造の研究』, 未來社, 1971  
海後宗臣編, 『日本教科書体系 近代編』, 講談社, 1962  
越後純子, 『近代教育と『婦女鑑』の研究』, 吉川弘文館, 2016  
片山清一, 『近代日本の女子教育』, 建帛社, 1984  
中内敏夫, 『近代日本教育思想史』, 國土社, 1973  
宮川透, 『近代日本思想の構造』, 東京大學出版會, 1986  
安川壽之輔, 『日本近代教育の思想構造』, 新評論社, 1970
- 구니이 유타카,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상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2(4),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 김순전·박선희, 「일본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기의 ‘修身’ 교과서 연구-‘修身’ 교과서에 나타난 ‘영웅의 유형’」, 『일어일문학』 2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4
- 김세서리아, 「『내훈』의 『열녀전』 인물 인용을 통해 본 소혜왕후의 젠더정치성」, 『시대와 철학』 32(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1
- 김은희, 「清末 이래 1930년대까지의 中國의 女性 想像—賢母良妻論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63, 영남중국어문학회, 2013
- 박이진·박시연, 「여자 수신 교과서 『『婦女鑑』(婦女鑑)』의 텍스트성-일본 근대 전환기 여성 표상의 다양성」, 『史叢』 105, 고려대역사연구소, 2022
- 윤옥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인물 분석」, 『초등교육연구』 34(3), 한국초등교육학회, 2021
- 윤종혁,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교육근대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26(1), 한국교육개발원, 1999

- 이새봄, 「메이지 일본의 ‘양치현모’론 탄생의 맥락」, 『개념과 소통』 22, 한림과학원, 2018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色川大吉, 「天皇制イデオロギーと民衆意識」, 『歴史學研究』 341, 青木書店, 1967
- 海原徹, 「西村茂樹の女子教育論」, 『社会福祉評論』 33・34, 大阪女子大学社會福祉學科, 1968
- 浮田真弓, 「明治後期高等女学校の国語教材に関する一考察」, 『桜花学園大学研究紀要』, 桜花学園大学人間関係学科, 2001
- 越後純子, 「『婦女鑑』の例話の出典」, 『人間文化創成科学論叢』 15, 2013
- 尾崎るみ, 「『婦女鑑』の「額梨咀林」をめぐって—明治の少女向け読み物の軌跡(八)—」, 『論叢児童文化』 48, くさむら社, 2012
- 菅野則子, 「望まれる女性像『幼學綱要』・『婦女鑑』を中心に」, 『帝京史学』 26, 2011
- 真辺美佐, 「華族女学校校長としての西村茂樹—その学校改革女子教育論をめぐって—」, 『弘道』 116, 日本弘道会, 2008

## Women Who became Models for Women's Education in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 A Study of the Composition of the Moral Textbook Hujokagami

Park, Lee-jin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composition appearing in the moral textbook Hujokagami in Japan were examined. The research method specifically quantified the distribution of 124 women who appeared as major messengers by country of origin, the variation in their activities, and the factors of status and social status. Hujokagami, featuring 124 women from 12 countries from the 11th century BC to the 19th century AD, showed Japan's modern transitional aspects well in the late 19th century. In particular, readers of this book were able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image of women crossing borders, races, and ethnicities by combining the experiences of various Western countries, unfamiliar local names, and long-distance travelers. There is also a change in Japan's perception of China and the West.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Japan's pride as a civilized country overlaps with Western figures. This led to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Japanese and Western women on an equal basis. Lastly, the social status of women is mainly introduced by men's class and origin.

This is a form of categorizing women's positions as daughter, wife, and mother.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status of wife at the time was socially important. Of course, there are also images of women who embody moral values through women's unique abilities rather than subsidizing husbands or substituting men's positions (roles). The presentation of such a character reconstructs the existing femininity and also means th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a new moral view. With the rediscovery of the position of wife, charity was regarded as a civilized moral code and developed as a quality that an ideal woman should possess. The challenging and subjective image of a woman who achieved such self-realization was also to embrace independence, which

had not been conceptualized up to that time, as a new femininity.

Hujokagami presents an exemplary image of a woman in Confucian society and the transition period to the modern era, and internalizes it. However, the reader goes beyond imitating (performing) the exemplary female figure in the learning process. The reader not only follows exemplary behavior, but also forms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by indirectly experiencing various human relationships appearing in the story. This means that the moral textbook Hujokagami should be grasped not in the world of repetition and imitation, but in a system of representation such as rearrangement and re-meaning.

Key Words : Hujokagami, Ideal image of woman, transition period of modernity, categorization of women, reorganization of moral view, identification with imitation